

차사본풀이

이번에는 우리 제주도말로 체스(差使)본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살다 돌아가실 때는, 체서님이 왕 데령¹⁾ 가는 거. 게난, 이 체서본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동개남은 상저절, 서개남은 금법당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 잇인디, 절에는 대스(大師)님허고 소스(小師)님허고 아이 중허고 경, 살앗인디. 대스님이 흐를 낳은 말을 허뉘, 소스를 불러다 낳,

“야, 소스야, 소스야, 난이 아맹해도²⁾ 칠십 골에 팔십 뉘민 내가 속곡허민³⁾ 죽어짐직 허다. 날랑 죽거든 낭 천 바리 들영 화장시켜 뉘. 느 혼자만 어뎡 이 법당을 직홀타⁴⁾. 인간에 내려 상 보민이 버물왕이 잇저. 겐디 버물왕이 애기사 낳는 게 아덜로 아홉 성제를 솟아 낫인디, 우이로⁵⁾ 삼형제도 오꼳⁶⁾ 죽어불고, 알로 삼형제도 오꼳 죽영 갈림 헤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중간으로 삼형제 백인⁷⁾ 엇다만은⁸⁾, 이 아기덜을 돌아당 명과 복을 잇영, 열다섯 십오 세도 냉겨 주곡, 이 애기덜을 소스중으로 경 시경⁹⁾ 이 법당을 직하라.”

소스님은,

“예. 알았습니다.”

허연. 아닌게 아니라, 흐루 이틀 살단 보난, 대스님이 흐루는 속곡허난 돌아가신 거아니. 게난 죽어부난. 살아계신 때에 곁은 대로, 이른 대로, 나무 천 바리를 헤단 화장을 시킨 거라. 화장시켜 뉘. 소스님도게 대스님 돌아가성 경 헤나난, 탁 지침도 허난. 아이, 법당에 완 누원¹⁰⁾ 자노렌 허난. 대스님이 꿈에 선몽(現夢)을 허길

“야, 소스야, 소스야, 내가 그만끔 산 때에 경 곤고 이르던 말을 잇엇이냐? 흐저 일어남 동이용국 버물왕네 집더레 어서 흐저 신수풀렌.”

게난 이젠. 퍼쩍 깨난 보난 꿈이난. 흐 침 질러¹¹⁾ 굴송낙¹²⁾, 두 침 질러¹³⁾

1) 데령: 데리고

2) 아맹해도: 아무래도

3) 속곡허민: 인기척 없이 숨어지다.

4) 직홀타: 지키다

5) 우이로: 위로

6) 오꼳: 골. 즉시.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행하게

7) 백인: 밖에

8) 엇다만은: 없지만

9) 경 시경: 그렇게 시켜서

10) 누원: 누워서

11) 흐 침 질러: 고깔 꼭지의 모양 표현.

12) 굴송낙: 모자

13) 두 침 질러: 장삼 소맷자락의 모양 표현.

비랑장삼¹⁴⁾, 목에 염주, 손에 단주를 허연. 금바랑 옥바랑 잡고 허연. 이젠 소
곡소곡 내려사단 보난, 아이덜이 집에 잇는게 아니고 팽즈냥¹⁵⁾ 그늘 아레서
막 삼천선비들 하고 노념을 허는 거라. 게난 스님이 넘어가단 딱 그 아이덜을
보더니만 그 아이덜 신더레

“야, 느네덜이 암만 글을 잘 허민 무시걸 허고, 활을 잘 허민 무시걸 허느니.
느네덜이 명이 단단 쫄라지어 열다섯 십오 셀 못 냉김직 허다.”

경 곱아 될. 단지 경 곱아 될, 스님은 소곡소곡 지나가부는 거라. 겐 넘어가
부난 아, 삼형제가 놀단 7만이¹⁶⁾ 생각을 허난. 아, 스님 이상헌 말 헤될 넘어
가분거아니. 이제 집으로 간 거라. 삼형제가 가명 질레서¹⁷⁾ 울명 갖주게. 집이
울명 간. 아버지, 어머니신디 간 허는 말이, 막 울명 가가난

“느네 무사 영 울엄디?”

허난에.

“아이고, 모른 소리 맙서. 아명아명 헌 소스님이 우리 놀았이난 넘어가단 우
리덜 7라 열다섯 십오 세도 못 냉기켄¹⁸⁾ 헤연 곱아될¹⁹⁾ 넘어 갑디다.”

허난

“어디 경 잘 아는 스님이 잇영 경 곧느니²⁰⁾?”

허난

“아이고. 경 곱앗우덴.”

허난. 게민 느진덕정하님 불러단,

“지금 어느 때나 똬이니?”

허난에.

“이제 열만이 아니 가실거우다.”

이제 느진덕정하님 7라,

“훈저 저 먼 정²¹⁾ 나강 보라. 어떻헌 스님 잇걸랑, 종이 덩검걸랑 우리 집더
레 모시렌.”

겐 벌써 나간 보난. 스님은 자기 데리레 올 거를 알안, 논두력²²⁾을 돌아난
디 돌약 돌약, 자꾸 거기만 돈 거라. 경 도난. 느진덕정하님이 간,

“스님아, 우리 집이양, 안 상전님이 스님 모셔오렌 험수다.”

14) 비랑장삼: 스님들이 입는 장삼

15) 팽즈냥: 팽나무

16) 7만이: 가만히

17) 질레서: 길에서

18) 냉기켄: 남기겠다고

19) 곱아될: 말해두고

20) 곧느니: 말하느냐

21) 먼 정: 먼 올레의 정.

22) 논두력: 논두렁

허난 이젠.

“경 허렌.”

허연 이제 온 거아니. 경 허난 짓알로 도느리멍

“소승 절이 웹네다.”

허멍 시군문²³⁾ 베깃딜²⁴⁾로 소곡소곡 들어산 허난. 시권제는 가지깡이²⁵⁾에
뎌 주난, 그걸 비완 이젠 곤는 말이, 버물왕 안부인이,

“소스님아, 소스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봅서.”

허난.

“소면²⁶⁾ 혈 듯 허오리다.”

영 짚을 듯 말듯 허단 허는 말이

“어뎡허난, 당신은 아덜을 아흠 성제 납데가?”

“예. 낫수다.”

“우이로 삼형제도 죽엇수까?”

“예.”

“알로 삼형제도 죽엇수까?”

“예.”

“지금 중간으로 삼형제 남앗수까?”

“예.”

“이 아기들이 명이 단단 쫄라지언 열다섯, 십오 세를 못 넘길 것 다투다.”

허난.

“것사 어뎡 험 말이우파?”

“경 허건, 원천강(袁天綱) 화주역(四柱易)이나 험 번 내놔 봅서 보게.”

아이, 원천강(袁天綱) 화주역을(四柱易) 내난. 초장, 이장, 제 삼장을 걷영 보
난, 딱 그추룩 글 삼자가 벅여진 거라.

“아이고, 이 노릇을 어뎡 허민 좋으코.”

“게문 소스님아, 굴송낙이나 험 번 빌려 줍서. 굴장삼²⁷⁾이나 빌려 줍서.
우리 애기덜 법당에 보내젠 허민, 경 해도 소서 행착(行着)이 다투아사 보낼 거
아니파?”

허난.

이젠 송낙²⁸⁾도 벗언 주고, 장삼도 벗언 주난

23) 시군문: 군문. ‘시-’는 접두사. 여기는 그저 문의 뜻으로 쓴 것.

24) 베깃딜로: 밖으로

25) 가지깡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26) 소면:

27) 굴장삼: 소매 폭이 넓은 장삼.

28) 송낙: 창호지로 만들어 쓰는 고깔 모자

“야, 큰아덜부떠 이레 오라.”

경 헨 이제 큰아덜 모자 씩읍고, 송낙 씩우고, 옷 입지고 허연

“영 저레 걸어보라.”

허연. 걸영 보난. 앞 정도 보난, 소서 행착. 뒷 정도 보난, 소서 행착이 분명
허여. 거 벳견²⁹⁾ 셋아덜도 씩우난, 걸리와 보난 분명허고, 죽은아덜도 씩완,
걸리와 보난, 소스 행착들이 분명허여. 이젠 벳겨두언

“소스님아, 가십서. 가시민 우리 애기덜 내일 모레 스시 날??지³⁰⁾ 법당으로
보내쿠다.”

허연. 소스님은 첩첩산중으로 올라가불고 그 애기덜 돌아단 허는 말이,

“설운 애기덜아, 느네들 어멍 아방이영 훈디 살민 열다섯 뉘기 전이 죽넨 헛
이네. 못 냉긴덴 허난. 법당에 강 열다섯만 강 아멩이나 살앙이, 열다섯만 넘
경 오라.”

경 허난. 그 애기덜도 울명도

“경 헛셴.”

허연. 경 가젠³¹⁾ 허난

“느네덜 은기, 늦기를 내어주젠 헤여도. 그걸 지영 뎡기젠 허민 짐이 뉘영,
무거왕 짐이 뉘거난. 경 말앙 비단을 삼삼은 구, 아흠 필을 내어 주커메. 그
비단을 이 느네가 지영 뎡기단이. 아이고, 뎡기단 보문 난데엇이 길로변에서
시장기가 날 때가 있나. 시장기가 7이 나걸랑 아무 집이라도 들어 강, 그 비
단 세 치 썩만 끊어 주멍 식은밥에 물즙이³²⁾라도 얻어 먹영 시장기라도 물리
멍 절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허영 가라.”

허연 보내난. 그 애기덜도 울명 이젠 아버지도 하직허고, 어머님도 하직허고

“잘 살암십서. 우리 강, 명과 복 잇영 왕,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허쿠다.”

허연 뉘. 이젠 금마답에 수리두고 올레에 간 막음두언 첩첩산중으로 삼형제
가 올라간 거아니. 경 헨 올라간 싱근드러³³⁾ 물팡돌(下馬石)이 잇이난 그 디
간 앓은디. 메여 논 개가 그냥 막 하늘이여, 땅이여 막 주끄는 거라 절에 메여
논 개가. 겐디 이 개가 양반(兩班)이 오민 양발을 들렁 주꾸고, 무반(武班)이
오민 누웁 주꾸고 허는 개라. 게 영 보난

“아이 중아, 저디 나상 보라. 어떻허난 개가 저추룩 주꿍이니?”

나산 보난

29) 벳견: 벗겨서

30) 날??지: 날까지

31) 가젠: 가려고

32)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33) 싱근드러:

“양발을 들은 주건계만은 올레에 간 보난, 어뎡 도령덜 서이가 싱근드러 몰
팡드레 앓앙 막 비새?찌 올없수다.”

이젠 소스님이 나온 거라. 나완

“설은 애기덜아, 잘 오랏저. 울지 말앙 이레 들어오라.”

겐 손 심영 들어간. 머리부떠, 간 고칼³⁴⁾ 디런 값아 두언. 이젠 상탕(上湯)에
간 매 짓고, 중탕(中湯)에 모옥허고, 하탕(下湯)에 수족 씻언 부처님 앞이 들어
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허멍. 이젠 부처님전에 칠성단에, 신중단에, 이제 독거단에, 조왕단에, 불공
을 허는 거라. 겐 불공을 허멍 사는 게 해가 바짜진 거라. 이젠 스님 노릇을
허연 애기들은 사는디, 뒷 해가 바짜지³⁵⁾ 아멩헤도, 삼스월 뉘연 산천에 꽃
이 만발헛던 모양이라. 게난 삼형제 허는 말이 스님신디 간,

“소서님아, 우리 여기 완도양, 해가 바짜전 저 산천에 보난 막 꽃이 만발허
엿수다. 우리가 강 꽃 구경이나 강 허영 오쿠다.”

허난.

“아이구, 경 허건, 강 행 오라.”

경 허난, 삼형제 좋다고 이젠 꽃구경 허젠 산천에 간 거 아니. 간 이산, 저
산 막 튀연 덩기명 꽃구경 허멍 허단. 브려진 치 아니허연³⁶⁾ 하늘 우터레 브
려보난, 검은 구름이 동글동글 떠오는 거라. 겐 그 구름을 보난 아이들이 그냥
탄복을 허는 거라.

“아이고, 저 구름은 동으로 오멍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얼굴 보안 일로
넘어가젠 허난, 우리들 삼형제 얼굴도 보안 넘어 감건만은. 우리사 살아 잇어
도 아버지, 어머님 생이별 허여 오란 이게 무신 일인고.”

허난. 아, 삼형제가 하나가 울어가는 게 벗 붙이명 서이가 다 울어분 거아니.
겐 막 울어가난, 절에서 돌아가신 스님이, 대스님이 소스님 꿈에 선몽(現夢)을
현 거라.

“야, 그 애기덜 무시것허레³⁷⁾ 산보 구경허레 보넨디. 그 애기덜 이제 오민이
아방도 강 보양 오키여, 어멩도 강 보양 오키여 허영이 허구데나, 절대로 보내
지 말라이.”

허연. 깨난 보난 꿈인디. 앓안 잇이난 삼형제가 손심영 영영 울멍덜 들어오
는 거 아니. 게난

34) 고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

35) 바짜지³⁵⁾: 바뀌어지니

36) 브려진 치 아니허연: 바라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37) 무시것허레: 무엇하러

“느네들 무사 경 울엄디?”

허난

“아이고, 소스님아 우리 가지 말 질³⁸⁾을 가전. 갓단 난디엇이³⁹⁾ 아바님 어머니 하도 그리완 살수가 엇우다. 우리가 예, 강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양 바로 돌아산 왕 살아도, 강 와사 살쿠덴.”

경 허난.

“경 허민 느네 나가 잇들⁴⁰⁾ 알더레 춤⁴¹⁾ 바끌테니⁴²⁾ 그 춤 마르기 전에 갓 다올타.”

허난

“아이고, 경 해도 갓다오쿠덴.”

스님은 못 가게 힘으로 춤 바끄크메 그 춤 무르기⁴³⁾ 전에 갓다오렌 허는 거 주게. 경 허여도 갓다오쿠덴 허난. 아이고, 이만허민 이 아기덜 얼마나 아방,어 멩 보구정 허영 영 험인고 허연

“게문 느네들이, 가기랑 가라만은 이, 과양땅이랑 들어가건 명심허영 간 오 라이.”

허연 달레연⁴⁴⁾

“느네들 마, 이 비단 정 온 거, 지영 강 오라.”

계난 비단 아홉 필 지영 온 거 짚어 전. 보내난. 좋다고 아이들이 춤추멍 뛰 어갓다, 돌아샷다 허멍. 아이고, 어느 제랑 강 아버지, 어머니 얼굴보곤 막 좋 안 가는 거라. 아, 한참 가단 과양땅을 근당 허난 갑자기 배고픈 기가 막 난거 라 원. 한 발자국을 앞더레⁴⁵⁾ 영 노문, 뒤터레⁴⁶⁾ 두 발자국이 넘어가고, 걸을 수가 없어. 배고프고 시장헌디도 눈을 영 베롱허게⁴⁷⁾ 턴 우터레⁴⁸⁾ 바레난⁴⁹⁾ 니 귀⁵⁰⁾에 풍경 들안 사는 집이 잇어. 이거 누게네 집인고 허연 문패를 간 보 난 과양쟁이네 집이라. 그 집이. 이젠 큰 성 허는 말이,

“나 동싱들아⁵¹⁾, 우리 영 배고팡 갈 수가 잇이나. 나가 저 집이 들어 강 식

38) 가지 말 질: 가지 말아야할 길

39) 난디엇이: 근거나 이유 없이 엉뚱하여 어리둥절하다. 난데없이

40) 잇들: 섬돌, 디딤돌

41) 춤: 칩

42) 바끌테니: 뺨을테니.

43) 무르기: 마르기

44) 달레연: 잘 타이르다.

45) 앞더레: 앞으로

46) 뒤터레: 뒤로

47) 베롱허게: 눈을 감지 않고 가늘게 뜬 상태가 되다.

48) 우터레: 위쪽으로

49) 바레난: 쳐다보니. 바라다보니

50) 니 귀: 네 귀통이

51) 동싱들아: 동생들아.

은 밥에 물제미라도 빌영 오크메⁵²⁾ 우리들 갈라 먹영 가게.”

허난.

“어서 경 험셴.”

허연. 큰성님이 들어가명 짓알로

“소승 절이 웹네다.”

허연. 스님들은 아무디라도 들어가민 ‘소승 절이 웹네다.’ 허는 거난. 경 허난. 아따, 과양생이 각시 난간에 걸터 앓앗단 손가락질 허명.

“아침부터 제수까리 벗어지게⁵³⁾ 중이 즈식 들어왔이니. 야, 수장남(首長男)⁵⁴⁾ 수벨감(首別監)⁵⁵⁾아, 저 중 귀 잡앙 저레 처불렌. 냅다 처불렌⁵⁶⁾.”

헌 거라. 경 안해도⁵⁷⁾ 배고프고, 힘도 없고게 허난에. 귀 심영 톡 건드난, 톡 허게 드러누 거야니. 이젠 암만 기다려도 안 와가난, 이젠 셋 성이 들어간 거라. 셋 성이 들어가난, 그 셋 성도 경 귀 잡안 냅다 처분거라⁵⁸⁾. 죽은 아신 암만 올레서 기다려도 원. 가난, 큰 성도 안 나오고, 셋 성도 안 나오고.

‘가난 배고픈 집에 우리 성님네 원, 아시 생각 안허연 지네만 먹어 불었인가?’

허연. 이젠 죽은 아시 들어 가가난.

“아이고, 오늘은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 떼죽⁵⁹⁾ 채우멍 들어오랐이니. 오늘 제수까리 다 봤젠.”

허명 과양생이 각시가 저 중도 귀 잡앙 네훈들렌⁶⁰⁾ 허난. 죽은 아시가 허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네 동녕⁶¹⁾을 안 해주면 쪽박조차 껌니까? 우리도 원래 소스 즈식이 아니라마썸. 우리도 원래 동경국 버물왕이 아들이우다. 명과 복이 쫄르덴⁶²⁾ 허난. 절에간 불공허단, 아버지 어머니 보고판 가는 길에 하도 시장하길레 시장기나 물령 갈까 해서 잠깐 들었나이다.”

허난. 왕의 아들이엔 허난 겁이사 팡팡 난 거라. 그때엔 이제 밥 훈 손가락 거려놓고 냉수에 닥닥 줍안 손가락 세 개 걸천, 앓은 디 앞더레 앓아단 주난. 아이, 그거 훈 손가락씩 먹으난 눈이 베지그랑 허연⁶³⁾. 이만 허면 산이라도 넘

52) 오크메: 올테니

53) 벗어지게: 재수가 매우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54) 수장남: 머슴들의 우두머리.

55) 수벨감: 수장남과 같은 뜻.

56) 처불렌: 때리거나 부딪히게 하는 것.

57) 경 안해도: 그렇지 않아도

58) 처분거라: 때리거나 부딪히게 하다.

59) 떼죽: 무리

60) 네훈들렌: 내두르거나 휘두르다.

61) 동녕: 동남아치나 거지가 먹을 것이나 돈푼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 동냥.

62) 쫄르덴: 짹다

어 가 질 듯, 물이라도 넘엉 가 질듯. 이젠 그때엔 죽은아시 허는 말이
“형님네야, 어머님이 우리 올 때 뭘엔 골앗수과⁶⁴). 어디 간 식은 밥에 물즙
이⁶⁵)라도 훈 손가락 얻어 먹으면 놉이거 공허게 먹고,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린덴 헛수게. 이거 비단 아홉 치만 과양생이 각시 애기라도 잇이민 속적
삼이라도 해주렌 허주만은⁶⁶), 머리 땡기라도 들이게 아홉 치만 끊어져똥 가기
가 어떻허파⁶⁷)?”

허난

“경 허렌.”

허연. 아이고, 그 비단 아홉 치 끊영주난. 경 잘 살아도 비단이엔 흰걸 안
봐난 생이라. 아이, 비단 보난 그냥 엇인 탐이 나는 거라. 그때

“아이고, 도련님네야, 우리 집이 들어왕 뵈서. 안 스랑도 좋수다. 밧 스랑도
좋수다. 내외스랑도 좋수다.”

하도 권허난. 이젠 들어간 거아니. 들어간 앳으난 술허고 궤기허연 막 출령
들여 온 거라. 경 허난.

“절에 잇어부난 술허고 궤기는 아니 먹읍네다.”

허난

“아이고, 모른 소리 맏서. 절간 안네서는⁶⁸) 안 먹어도양, 절간 베끼던 나오
민 다 먹영 땡갑니덴.”

하도 권헤난⁶⁹) 법으로. 지금도 스님덜 제라허지⁷⁰) 아니헌 스님덜 보민. 돼지
고기도 먹곡, 술도 먹영 땡기는 스님도 잇고. 경 허연. 이제 그걸 술을 훈 잔
씩 호록호록 마신게. 동더레⁷¹)도 비식, 술에 취헤연게⁷²). 서더레⁷³)도 비식, 남
더레도 비식 영 드러누원 잇이난. 광양생이가, 영 귀주언⁷⁴) 삼형제가 들으난,
정지에 간 솟두껍이 왈그랑탕 왈그랑탕 소리가 나. 아, 우리 비단이영 끊어주
난 딱똥⁷⁵) 점심이나 해주젠⁷⁶) 헛인가. 점심 헤 주걸랑 딱똥이 우리 먹영 가

63) 베지그랑 허연: ‘베지근ㅎ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는 생기가 약간 돌아나는 모양을 나타냄.

64) 골앗수과: 말하였습니다.

65)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66) 해주렌 허주만은: 해주라고 하지만은.

67) 어떻허파: 어찌합니까.

68) 안네서는: 안에서는

69) 권헤난: 권했던

70) 제라허지: 떳떳하지 않은. 격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71) 동더레: 동쪽으로

72) 취헤연게: 취해서

73) 서더레: 서쪽으로

74) 귀주언: 귀 기울이다.

75) 딱똥: 따듯한

76) 해주젠: 해주려고

주겐 허연. 아, 삼형제가 눈계, 소로록허게 줍이 들어분 거라. 줍 들어부난 과 양생인 밥이랑 말앙, 오년 묵은 찹지름에 삼년 묵은 간장물에 솟디 낀 불 숲아⁷⁷⁾ 가난 오근도근도근 데와지난. 그걸 그릇에 걸연 낀 문을 확 올안보난. 삼형젠 코 골멍 잠 주게. 술 먹어부난게. 겐 잠시난 웬 귀⁷⁸⁾로 늑단 귀⁷⁹⁾더레 소로록허게⁸⁰⁾ 비와불고. 또, 늑단 귀로 웬 귀더레 소로록 허게 비와부난. 삼형제가 얼음산에 구름 녹듯 소로록허게 다 죽은거아니.

“어따, 이놈이 새끼들 잘 죽었저.”

비단을 확허게 빼연 금동궤상에 낀 상거슴 통쇄 허연 싱강허게⁸¹⁾ 증가될⁸²⁾

“야, 수장남 수벨캄덜아, 이레들⁸³⁾ 오라. 오늘 밤이 막, 밤 짚영⁸⁴⁾이. 짚은 밤이 뉘거든이. 요것 덜 가맹이⁸⁵⁾에 툃툃허게⁸⁶⁾ 몰아 앓영이. 지게에 지영 강이거 어디 잘못 데끼당⁸⁷⁾ 발각이 뉘민 큰일난다. 이거 버물왕이 아들이엔들 해라. 게난 존등들에⁸⁸⁾ 큰큰헌 돌맹이들 하나씩 돌아 메영⁸⁹⁾ 주천강 연훼못디 강 다 디물리와 불라⁹⁰⁾. 발각뉘게⁹¹⁾ 말앙. 큰일나게 말앙.”

“알았수덴.”

허연. 종덜이사 뭐, 상전 말 들어살거난. 이젠 그날 밤 짚은 밤이 뉘난. 개, 고녕이⁹²⁾ 문딱⁹³⁾ 줍 자분 때에 지게에 지언, 가맹이⁹⁴⁾ 툃에 몰연, 몰안 주천강 연훼못디 간. 돌맹이 하나씩 돌아메영 데껴분거라. ‘도둑놈이 들으카 후단 우뚝 사는 제격⁹⁵⁾.’으로. 지 혜진⁹⁶⁾ 짐작이 잇이난. 아침인 동세백이⁹⁷⁾ 일어난 거라. 과양생이 각시가 일어난 줍자는 수장남(首長男)들 강 깨완.

“후저 일어냥이, 그냥 가민 놈이 알면 수상허게 생각을 허니까. 몰 이경⁹⁸⁾

77) 불 숲아: 불을 때다.

78) 웬 귀: 왼쪽 귀

79) 늑단 귀: 오른쪽 귀

80) 소로록허게: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꼴. 곱게 잠이 드는 꼴.

81)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어지거나 닫히는 소리.

82) 증가될: 잠가두고

83) 이레들: 여기에.

84) 밤 짚영: 밤 깊어서.

85) 가맹이: 가마니.

86) 툃툃허게: 빈틈없이 탄탄하다.

87) 데끼당: 던지다가

88) 존등들에: 잔등이. 허리 부분에

89) 돌아 메영: 달아 매여서

90) 디물리와 불라: 들이밀어 불어라.

91) 발각뉘게: 발견되게

92) 고녕이: 고양이.

93) 문딱: 모두

94) 가맹이: 가마니

95) 도둑놈이 들으카 후단 우뚝 사는 제격: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의 한 일을 되돌아 보는 격을 말함

96) 지 혜진: 자기가 했던.

97) 동세백이: 이른 새벽에.

물 맥이는⁹⁹⁾ 핑계에 헤근에게, 강 뺑, 주천강 연훼뭇디 간 보라. 영장(靈場)이 나 올르지 안 헛이나. 강 보라.”

허난. 이젠 물 이꺼앗언¹⁰⁰⁾ 간 보난. 아, 어적께도 엇엇던 고장(花) 세 개가. 삼색(三色)베기 고장(花)¹⁰¹⁾이 동골동골허게 뜬 거라. 게난 물은, 간 물 먹젠 헤가민 천리만리, 또 고장이 그냥 확허게 어느동안 놀아왕¹⁰²⁾ 물 먹는 물 주둥일 박박허게 모지려. 게난 판드레나¹⁰³⁾ 강 맥여보주긴 허연¹⁰⁴⁾ 물 곳영 딴 딜로 간 맥이젠 허문, 또 어느동안 그레 놀아완 물 주둥일 막 무지려부는¹⁰⁵⁾ 거라. 게난, 이젠 그 법으로 물이, 주둥일 무지려부난 앞발로 물을 팡팡허게 그치영¹⁰⁶⁾ 물 먹어나난. 그 법으로 옛날 물들 혈 때에 물 이꺼 물 맥이레 가민 들어가민, 앞발로 물부터 팡 팡 치워놔사 물을 먹어. 그 법지법으로. 경 허연 이젠 잡이 오란.

“간 보난 무슨 폐적(表迹) 엇어나?”

“아이고, 상전님 모른 소리 맙서. 삼색 벵이 고장이 동골동골 떠신디양 물 먹젠 헤가민 물 주둥일¹⁰⁷⁾ 하도 무지려부난 물 못 먹연 그냥 오랏수다.”

아이고, 고장이엔 허난 그것에도 탐난 거 아니. 구덕 하나, 엇인 연서답¹⁰⁸⁾ 7는 대구덕에¹⁰⁹⁾ 담안 물막개 놓고. 게, 주천강 연훼뭇딜 이젠 허울허울 간 거라. 간 빨래랑 와랑자랑 빠는 체허단, 삼색벵이 고장은 동골동골 떼어난 물막개로 활활활활 이녁¹¹⁰⁾ 앞더레¹¹¹⁾ 등기명¹¹²⁾

“어따, 요 고장 곱기도 곱다. 나에게 테운¹¹³⁾ 고장이건 나 앞더레¹¹⁴⁾ 오렌.”

허멍 물을 활활 동겨가난 고장 세 개가 동골동골 떠온 거라. 제일 앞이 오는 건 보난. 빨강 헌 고장인디 병실병실 웃는 형치(形體)를 허고, 가운데 오는 건 보난 노린¹¹⁵⁾ 고장인디 싱긋싱긋 용심 내는¹¹⁶⁾ 형치를 허고, 조름¹¹⁷⁾에 오는

98) 물 이꺼: 말을 매어서 이끌어 가다.

99) 물 맥이는: 물 먹이는.

100) 물 이꺼앗언: 말 이끌고서.

101) 삼색베기 고장: 세 가지 색의 꽃.

102) 놀아왕: 날아와서

103) 판드레나: 다른 곳으로

104) 맥여보주긴 허연: 먹여볼까 해서

105) 무지려부는: 모질게 비틀어 끊다. 풀이나 배추를 손으로 뒤틀어 뜯다.

106) 치영: 쳐서.

107) 물 주둥일: 말의 입.

108) 연서답: 서답=빨래. ‘연-’은 접두사.

109) 7는 대구덕에: 가는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

110) 이녁: 자기. 자신.

111) 앞더레: 앞으로

112) 등기명: 자기 쪽으로 오게 끌어당기다.

113) 테운: 주어진 ‘복을 타고나다’의 ‘타다’의 사동관형사형

114) 앞더레: 앞으로

115) 노린: 노란.

116) 용심 내는: 화를 내는

건 푸린 고장인디 우는 형치를 현 거라. 손은 물 알더레¹¹⁸⁾ 썩헝게¹¹⁹⁾ 드물
 란¹²⁰⁾, 존둥이¹²¹⁾로 똑똑하게 꽃 세 개를 꺾은 구덕에 놓안 집이 오란. 이제
 이 꽃을, 앓아도¹²²⁾ 보고 사도¹²³⁾ 보고 뎡기명¹²⁴⁾도 보젠 어디 꼽으민 좋고
 막 허연. 이젠 일문전(一門前)에 하나 꽃고, 뒷무똥¹²⁵⁾더레 하나 꽃고 생깃지
 동¹²⁶⁾더레 하나 꽃고. 아, 꼽은 게, 과양생이 밥 먹어난 밥상 들령가젠¹²⁷⁾ 영
 허민. 그자, 그 꽃이 과양생이 각시 허운데기¹²⁸⁾ 상고박¹²⁹⁾도 심영 박허게¹³⁰⁾
 등겨불고¹³¹⁾, 이제 또 뒤에 장 거리레 가젠허민¹³²⁾, 뒷슬작¹³³⁾도 허운데기 심
 영 그자, 복허게 메불고, 무똥드레 나가젠허민, 앞슬작 허운데기도 심영 복허
 게 메불고, 부애가 꺾죽같이 난 거라원¹³⁴⁾. 사름도 아닌 허운데기를 고장신디
 심지덴¹³⁵⁾ 말이 무신 말이닌, 박박허게 그냥 무지런¹³⁶⁾ 정동화리(靑銅火爐)더
 레 불을 팍허게 붙여분거라. 경 험 이젠 올레에 나간, 계도¹³⁷⁾ 부엔¹³⁸⁾ 나고
 유왕유리¹³⁹⁾ 험이난. 그 동네엔 청토산이 마고할마님은 불망굴¹⁴⁰⁾이 잇건 하나
 빌어단 식은밥에 물즙이¹⁴¹⁾ 데왕 먹젠

“과양생이 각시야, 나 불망굴¹⁴²⁾ 험 방울만 드라.”

허난에

“저, 우리 정지에 간 뵙서.”

허연. 이젠 정지에 간 솟강알이¹⁴³⁾에 아멩 헤쌍봐도¹⁴⁴⁾ 불망굴이 엇인 거라.

117) 조름: 꿈무니.

118) 알더레: 밀으로.

119) 썩헝게: 썩은 내밀거나 살그머니 내미는 꼴. 가벼운 움직임으로 썩 들어가는 꼴.

120) 드물란: 들이 밀어서

121) 존둥이: 허리 부분으로

122) 앓아도: 앓아서도

123) 사도: 사서도

124) 뎡기명: 다니면서

125) 뒷무똥: 집 뒤쪽의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126) 생깃지동: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

127) 들령가젠: 들고가려고

128) 허운데기: 머리카락.

129) 상고박:

130) 박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131) 등겨불고: 자기 쪽으로 오게 끌어 당기다.

132) 가젠허민: 갈려고하면

133) 뒷슬작: 귀밑털. 머리털을 낮이 이르는 말.

134) 부애가 꺾죽같이 나다: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다는 말.

135) 심지덴: 잡힌다는

136) 무지런: 모질게 비틀어 끊다. 풀이나 배추를 손으로 뒤틀어 뜯다.

137) 계도: 그렇더라도.

138) 부엔: 화는

139) 유왕유리: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

140) 불씨.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별갈게 된 것.

141)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142) 불망굴: 불씨.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처럼 별갈게 된 것.

143) 솟강알이: 아궁이

이거

‘정동화리에 불 잇인가.’

허연. 안네 들어 간. 정동화리 헤쓰단¹⁴⁵⁾ 보난 불망굴은 엇고 구슬 세 개가 나온 거라. 구슬 앓안 베끼디¹⁴⁶⁾ 나완

“과양생이 각시야 이거 보라. 이거. 정지엔 간 보난 불망굴은 엇고이, 정동화리 헤싼 보난¹⁴⁷⁾ 구슬 세 개 잇이난 봉간¹⁴⁸⁾ 오랏저.”

허난. 아이. 그걸 또 박허게¹⁴⁹⁾ 빼앗으멍

“아이고, 이거 이 늙은이, 저 늙은이 불망굴이 없걸랑 그냥 오주. 나 애기 나민 주젠 더 곱질 디¹⁵⁰⁾ 엇이난, 불화리에 재 쏘곶¹⁵¹⁾에 구실을 곱정¹⁵²⁾ 놔뒀인디 판 오라불엇젠.”

박허게 빼앗은 거라. 게 손에 놓아 이레 놓아 동골동골, 저레 놓아 동골동골 허는 게 이녁 자신도 모르게 입에 들어 간 거라. 그것이. 입에 들어가난 동골동골 허단 보난, 구슬 세 개가 다 녹안 오물렉기¹⁵³⁾ 목 알더레 내려가분 거라. 아, 그날부터 포테(胞胎)가 뒀언 현 게 아홉열 덜 준삭(準朔) 채완 낳는 건 보난.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구들에서, 구들 니¹⁵⁴⁾ 구석을 다 뒹굴언, 막 애기 나젠 허난. 겐, 난 건 보난, 아들 하나 난 거 아니. 아, 이제 또 즈친¹⁵⁵⁾ 거 날건가

허연 뒹굴단 보난, 또 아들을 난 거라. 아이고, 이제 쌍둥이 낳았구나. 이제 사 즈친 거 나올테주 허연 또 뒹굴단 보난, 또 아들을 난 거라. 게 훈 날에 아들 세 개를 난 거라. 아이, 과양생이 각시가 자닥을 부리뒀¹⁵⁶⁾, 이 나라 백성 누게가 아덜 세 개를 난 사람이 잇냐고 말이지, 나나 아덜 세 개를 낳고렌. 이거 어전에 보고허민 큰 베실을 내리울거옌. 이젠 어전에 보고를 헛어. 아들 세 갠 낳았습니다. 허연 보고 허난, 어전에선

“사람이 어찌 애기 세 개를 낳느냐. 개 삼시렁¹⁵⁷⁾이나 훈 배에 애기 세 개

144) 헤쌍봐도: 속이 드러나게 펼치다. 흐트러뜨리다. 헤치다.

145) 헤쓰단: 속이 드러나게 펼치다. 흐트러뜨리다. 헤치다.

146) 베끼디: 밖에

147) 헤싼 보난: 헤쳐 보니

148) 봉간: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 줍다. 어떤 것을 노력 없이 거저 얻다.

149) 박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150) 곱질 디: 숨길 곳.

151) 쏘곶에: 속에

152) 곱정: 숨겨서

153) 오물렉기: 먹이를 입 속으로 썩 집어 넣어 삼켜버리는 꼴.

154) 니: 네(四).

155) 즈친: 암퇘. 여기서는 딸 아이를 말함.

156) 자닥을 부리뒀: 남을 업신여겨 있는 체 잘난 체 뽐내는 상태.

157) 삼시렁: 삼시렁 하다(불품이 없다는 전라도 말.)

난 덴 허연, 무신 베슬은 안 내려오고 체 세 가마니를 마련허연 보내온 거라. 체 맥이는 개엔. 겐디. 아, 이 애기덜이 일곱 솔 뉘난, 한문서당 보내민 읽어도 장원, 써도 장원, 외워도 장원, 그렇게 역역허고¹⁵⁸⁾ 똑똑허는 거라 애기덜 삼형제가. 게난, 이젠 이디도 아닌게 아니라 서울 상시관이 과거허레들 이젠. 삼천선비들 다 가젠 허난, 이 아이덜도 가젠 허난 어멍은 하도 아들덜 아¹⁵⁹⁾ “니네, 가지 말라. 잘못 땡기당 어느 놈 손땅에 죽어진다. 어느 놈 발땅에 죽어진다. 가지 말라.”

허난.

“우리가 안 가민 누계가 갑네까. 우리가 강 와사 이루저 어머니, 아바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축지방(祝紙榜)이라도 쓸 거 아니펜.”

경 허연 우견¹⁶⁰⁾. 삼형제가 과걸 가부난. 메날¹⁶¹⁾ 과양생이 각시는 이날이나 올 건가, 저날이나 올 건가. 막 질레서만¹⁶²⁾ 살아. 질레서만 살단, 흐를은 높은 동산에 간 불림질¹⁶³⁾을 흐노렌 허난. 아이, 브려진 체 아니 허연 보난. 동으로 과거 당선 뉘언, 막 주네나팔¹⁶⁴⁾들 불명 비비둥당 허멍, 과거들 뉘영 와라차락 막 들어오는 거 아니. 게난 지네 아덜덜인중은 몰르고. 7만히¹⁶⁵⁾ 허는 불림질이나 허지 안 허연

아이고, 저디 과거허연 오는 건 저거 어느 집안 산천인고, 어떤 놈이 집안은 과거 노민 저추룩¹⁶⁶⁾ 과거도 잘 뉘는고. 우리 집이 애기들은 아이고 어디 강 죽엇인가, 살앗인가. 어느 놈 손땅에 가신가, 발땅에 가신가. 생각허멍

“그자 저 과거 허영 오는 것들랑, 그자 요 우리 목다리 썸에만 오거들랑 오도독기¹⁶⁷⁾ 그자 다 죽게 해줍서.”

허멍 막 하느님신디 빈 거라게. 그것도 게. 아, 과거 허영 오는 건 보난 과양생이네 집더레 들어오는 거 아니. 과양생인 그땐 그냥 불림질 허단 빈 솔박 들르고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집안 산천도 그럭저럭 뉘어간다.”

허멍 막 춤을, 덜씩덜씩 춤을 춘 거라. 경 헨 막 춤 천. 가메¹⁶⁸⁾를 하메(下馬)허연. 큰아덜은 동방급제를 허엿수덴 허연, 문전(門前)에 출려놓안 절을 허

158) 역역허고: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

159) 아¹⁵⁹⁾: 귀여워서.

160) 우견: 되지 않은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다. 우겨서.

161) 메날: 매일

162) 질레서만: 길에서만

163) 불림질: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쪽정이 등을 날려버리는 일.

164) 주네나팔: 피리.

165) 7만히: 가만히

166) 저추룩: 저렇게

167) 오도독기: ‘오도독’ 하는 소리를 내며 단번에 부러지는 꼴.

168) 가메: 가마

렌 허연. 이젠 문전에 출려난 절을 허난 속곡허게 죽어불언. 일어나질 안허여. 셋아덜은 팔도도장원(八道都壯元)을 허엿수덴 허연 동네 어른덜 불러단 절을 허렌 허난. 속곡허게 절헨 게 아니일어나. 죽어분 거라. 죽은아덜은 조왕(寵王)에 강 조왕할마님 덕택으로 우리 영 과거 헨 오랏수덴. 허영 강 절 허렌 허연. 아이, 절을 허난 속곡허난 다 죽어분거야니 삼형제가. 아이고, 과양생이 각신 누원 둥굴뚝,

“우리 애기덜 헨 날 헨 시에 낱고, 헨 날 헨 시간에 과거 다 당선(當選)뉘고, 헨 날 헨 시간에 다 죽어불엇덴 허는 게 뉘 말인고.”

막 누원 둥근 거라. 뉘 둥글어도 어떻 해결 헨 판이 엇인 거라. 게난, 이제 느진덕이영, 이제 장남덜 7라,

“앞뵈디, 뉘뵈디 출병¹⁶⁹)을 허영 놔두라.”

허연. 출병허여 뉘. 내가 어느 놈을 물어도 내가 이 얘기를 꼭 허고야 말켤. 이제 짐치원(金緻員)을 좇앙 간 거라. 이젠 짐치원님 좇앙 간.

“원님아, 원님아, 경 헨게 아니고양. 난, 헨 시 헨 날 삼형제 낱고, 헨 날 헨 시간에 과절허연 다 당선(當選)뉘고. 아, 겐 완. 문전에영 조왕에영 다 절들 허 단양. 헨 날 헨 시간에 다 죽어부는 일이 어디시느니. 해결을 헤줍서.”

허난

“경 허건 집이 강. 아침이랑 아침 소지(所志)를 올리고, 낮이랑 점심 소지(所志)를 올리고, 어둑어가민 저녁 소지를(所志) 올리뉘. 석 덜 열흘 백일 동안에 아홉 상자 반을 소지(所志) 절체(缺處)를 드령 오민 나가 그 얘기를 허여주마.”

허난. 이젠 집으로 완. 막 청소허고 무시거 허연. 아침이도 보민 소지(所志) 허영 슬고, 낮이도 뉘든 소지(所志) 슬고, 저녁에도 뉘든 소지(所志) 슬고 허 난, 셋 덜 열흘 백일이 뉘난, 요만이¹⁷⁰) 헨 상자로 아홉 상자 반을 다 쓴 거라. 겐 원님 또 좇아 간 거라.

“원님아, 나 저. 아홉 상자 반 소지(所志) 슬안¹⁷¹) 왓습니다.”

허난. 원님 허는 말이,

“누계영¹⁷²) 싸왕¹⁷³) 죽으나, 도투단¹⁷⁴)을 죽으나, 매를 맞안 죽으나, 경 헤 엇이든 해결을 허주만은. 이녁으로 이녁 옥살이 지영, 이녁 애기 죽은 거 나 이 해결 못허키여.”

허난. 아이고, 성 담 베깃디레¹⁷⁵) 나간게 만든 빙빙 돌아다니명

169) 출병: 정식 매장을 하기 전에 송장을 가까운 곳에 임시 묻어 두는 일.

170) 요만이: 이만큼.

171) 슬안: 불태워서.

172) 누계영: 누구와

173) 싸왕: 싸워서

174) 도투단: 다투다가

“개궂든 짐치원아, 췌궂든 짐치원아, 이만 헌 절체(節次)도 못허멍 이 고을에
사름 엇이난¹⁷⁶⁾ 완에¹⁷⁷⁾ 원님살이 험덴.”

막 옥을 헌 거라. 원님신디.

거난 원님이 하도 어이가 엇인 거라. 사름 닳아진 거 신디¹⁷⁸⁾ 헛이민¹⁷⁹⁾. 과
양생이 각시 만씩헌 거 신디 내가 이런 옥을 들엉 어떻 살린. 안으로 문을 딱
잡안 눈¹⁸⁰⁾ 거라. 게난¹⁸¹⁾ 문 중간¹⁸²⁾ 누난, 지동토인(妓童通引)은 밥상을 들
런 들어와 보난 문이 중가지언¹⁸³⁾

“이 문 엽서. 이 문 엽서.”

헤도 문을 안 올라. 거 이제 안부인신디¹⁸⁴⁾ 간 곱으난 안부인이 밥상 들르곡
허연 완

“원님아, 원님아, 어떻허난 문을 중간 놓디강. 이 문을 올라 칭원훈¹⁸⁵⁾ 말이
잇이나, 원통훈 말이 잇이나 나한테 곱읍서. 애기업게 말도양 귀 넘어 듣지 말
렌 헛수다. 곱아 봅서¹⁸⁶⁾.”

허연. 이젠 문 올라 곤는¹⁸⁷⁾ 건 보난 과양생이 각시네 사건이라. 게난. 이제
아이고, 게난 여자 머리가 빨라. 이젠 그때엔 원님 안부인 허는 말이,

“아이고, 원님아, 헌 일 알고, 두 일은 몰람수파¹⁸⁸⁾. 경 저 어른만 즈들¹⁸⁹⁾
일이 이수파. 이 고을에양 역력허고 똑똑한 강림이가 살았수께¹⁹⁰⁾. 강림이가양
하도 똑똑허연양, 문 안네도 아홉 각실 허연 살고, 문 베깃디도¹⁹¹⁾ 아홉 각실
허연 살고, 이구 십팔 열으덱 각실 행 살았이난. 강림이 안티랑¹⁹²⁾ 곤지 말양
사흘 동안 개폐문(開閉門)법 열리뵈. 사발, 방문허영, 문딱¹⁹³⁾ 어른, 아이 다
동안(東軒) 마당에 나오렌. 사흘 동안을 방문을 허뵈, 강림이 신디랑 곤지 안
허믄. 강림인, 진, 지신딘¹⁹⁴⁾ 아니 곱으난, 아니 나와도 뵈 건줄 알양 잇걸랑,

175) 베깃디레: 밖으로

176) 엇이난: 없어서

177) 완에: 와서

178) 거 신디: 것 에게

179) 헛이민: 했으면

180) 눈: 누운

181) 거난: 그렇게 해서

182) 문 중간: 문을 잠가서

183) 중가지언: 잠가져서

184) 안부인신디: 안부인에게

185) 칭원훈: 稱冤한. 분하고 억울함을 들어 말하는.

186) 곱아 봅서: 말해 보세요.

187) 곤는: 말하는

188) 몰람수파: 모르십니까.

189) 즈들: 걱정할

190) 살았수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191) 베깃디도: 밖에도

192) 강림이안티랑: 강림이에게는

193) 문딱: 모두

강 심어당 꺾(關)을 시경, 저승 강 염라왕 잡혀오렌 허영¹⁹⁵⁾ 해결 허는 게 어
떻허우파¹⁹⁶⁾?”

허난. 아, 안부인 말도 들었보난 맞아벤 거라. 겐, 이젠 사흘 동안을 사발통
문을 다 현 거라. 동안 마당에 시간뒀건¹⁹⁷⁾ 딱 다 나오렌. 문딱 해도¹⁹⁸⁾ 강림
이 신딘 안 근 거라¹⁹⁹⁾. 안 7난 그날 아침인 문딱 나온 중에 강림이만 안 나
온 거아니. 게난 그때엔 이제,

“강림이 꺾이여!”

이제 강림이 강 심영 오렌²⁰⁰⁾ 허연. 심으레 간 보난. 강림인 진 안 나와도
뒀 건줄 알안. 기생첩들 품에서만 노뉘놀이개²⁰¹⁾를 허는 거라. 게난 이제 강림
이 너 이레 당장 나오렌 허연. 큰 칼을 씨완 동안 마당에 연단위에 세워 난.
이제 즈각(刺客) 놈 불르렌 허연. 즈각(刺客) 놈은 칼 허연 춤을 춘 거라.

“야, 강림아, 너 이 자리서 목숨을 바쳐 죽겠느냐? 저승 간 염라왕을 잡혀
오겠느냐²⁰²⁾?”

아, 영 보난 즈각(刺客) 놈은 칼 심연 춤을 뺏 뺏 취 가난. 죽으켄 허믈 저걸
로 확 현 번 후려불민 죽어짐직 허여 허난. 그때엔 확 생각허기를
'짐승은 나면 가죽을 냉기고²⁰³⁾, 인간은, 사름은 나면 명예를 냉기렌.'

허난. 큰 소리로,

“예. 저승 간 염라왕 잡혀오겠습니다.”

허난.

“경 허믈. 너 저승 강 오렌.”

“겐디 나 저승가렌 현 이유는 뭇니까? 뭇 때문에 날 저승을 가렌험수까?”

허난에

“경 현게 아니고. 이 고을에 과양생이네가 아덜 삼형제를 낳고, 삼형제 과거
험 오고, 삼형제가 현 날 현 시 다 죽으난, 이 얘기를 못허난 염라왕을 잡혀단
해결허젠 험저.”

허난.

“저승 가렌 현 폐적(表迹)이 잇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뭇를 가져야 저승을 갈

194) 지신딘: 자기에게는

195) 잡혀오렌 허영: 잡아오라고 해서

196) 어떻허우파: 어찌합니까.

197) 시간뒀건: 시간뒀면

198) 문딱 해도: 모두에게 해도

199) 안 근 거라: 말하지 않은 거야.

200) 심영 오렌: 잡아오라고

201) 노뉘놀이개: 놀이하다. 놀며 지내다.

202) 잡혀오겠느냐: 잡아오겠느냐.

203) 냉기고: 남기고

거 아납니까?”

허난. 내어준 건 보난, 흰 종이에 검은 먹 글을 써 줬 내어준 거라. 이거 본
메²⁰⁴)난 가정가렌. 이제 그거 들르고 허연. 아이고, 저싱 길이 어딘고, 저싱은
가젠 허른 어디로 어떻 허연 가는 길인고. 이제랑 동네에 유지급 들이나 좇아
강 들어보젠 유지어른들 좇앙간

“저승은 어딜로 가는 거꽈?”

허난

“아이고, 난 몰른다.”

어딜 가든 좋고. 이젠 성방(刑房) 방에 놀려든 거라.

“난 몰른다.”

이젠 스령(使令). 사또 방에 놀려들어도

“난 몰른다. 저승은 우리 몰른다²⁰⁵).”

이별 잔으로 이별이여. 술 훈 잔 이거 받앙가렌. 술이나 가는 디마다 주고.
이젠 제일 친허게, 막 훈디 기생 칩도 덩기고, 술 먹으레도 덩기고, 나도 가마.
나도 가마 허는 친구가 잇이난, 친구덜 좇안 간 거라. 간

“야, 친구 벗덜아 오라. 나영 훈디²⁰⁶) 저싱이나 강 오게.”

허난

“아이고, 난 말다. 저승이고 어디산디 난 말다.”

허난

“야, 느네들 너미²⁰⁷) 경 허지 말라. 나 옛날 돈 잇영 기생집이 가고 술집이
갈 때엔, 나도 가마, 나도 가마. 느네 벗덜도 하더라만은 저승은 가젠 허난 이
거 나 혼자 뿐이로구나 이.”

알앗덴 헨. 이젠 덩기단 수양 누님을 좇앙 간²⁰⁸) 거라. 누님신디 간,

“수양 누님아, 나 저승 값우다.”

허난

“아이고, 오라방. 저승질은 머나먼 질 삼천칠백 리 질이엔²⁰⁹) 허연게 저승은
가젠 허른이. 눈물도 나고, 땀도²¹⁰) 나곡이²¹¹) 보인 안개도 끼고, 산 안개도
끼곡 허메.”

겐 눈물 수건을 끌영 주는 거라. 땀 수건이영 끌영 주멍 이걸로, 가멍 눈물

204) 본메: 증거물이 될 사물.

205) 몰른다: 알지 못한다.

206) 훈디: 함께

207) 너미:너무

208) 좇앙 간: 찾아가다

209) 질이엔: 길이라고

210) 땀도: 땀도

211) 나곡이: 나고

나건 눈물 닦으멍 가고, 뚝 나건 뚝 닦으멍 가렌. 겐 청백베, 흑백베를 내어
준 거라.

“가당, 보인 안개, 산안개. 안개가 끼걸랑 청백베로 영 두르고, 흑백베로 영
두르곡 허영 강 오렌.”

겐 주난 그거 말안. 아이, 곰곰이 생각 허난. 아이고, 이거 큰각시, 시집오고
나 장계 갖젠 허여도, 하루 저녁 누워보지도 못 허고, 그냥 나 사모관디(紗帽
冠帶)벗은 읍드레²¹²⁾ 놓아두고, 큰각시 족두리 벗견²¹³⁾ 놓아두언. 그 질로 나
오란 이구 십팔, 열으덥 각시들만 좃앙 덩겅이난²¹⁴⁾. 아이고, 큰각시가 얼굴
잊어붙언 이거 어떻허믄 좋고. 이제랑 마지막으로 큰각시나 사는디나 강 얼굴
이나 보양 가주게 허언. 이제 큰각시 사는 델 간 거라. 허울허울 가당 보난 큰
각신 굴묵낭²¹⁵⁾ 방에²¹⁶⁾에 도훼낭(桃花木) 절깃대²¹⁷⁾에 물보리 섞어낸 이녁 전
승 팔즈 생각허멍

“이여도 방에야, 이여도 방에야~”

허멍. 좋은 소리 내걸천²¹⁸⁾ 방에를 콩콩 짙없주게. 게난 강림이가 허울허울
들어 가가난, 방에 지단 툃허게²¹⁹⁾ 방엘 놓아 된.

“아이고, 어떻허난 오늘은 저 우리 올레에 정문이 열어서십디가 범주리낭 가
시가 걸어저십디가?”

영 곱아도 속숨. 저영 곱아도 속숨. 그냥 구들문 올라뵈²²⁰⁾ 허울허울 들어가
는 거라. 거난, 강림이 큰각신 방에 만지단 7만히 생각허난.

‘잘나도 내 낭군이요, 못나도 내 낭군이요. 내 낭군이 워낙 잘 나부난, 각시
덜토²²¹⁾ 기생첩년덜 이구십팔 여레덥 개를 행 덩겅이난²²²⁾. 경 해도 나 집이
온 손님이난 구들에 간 보주젠.’

허연.

방에 지단 거 내붙어뵈 구들에 간 문 올언 보난 막 옆더전²²³⁾ 울었어. 영영
울었이난.

“어떻허난 옷을 일 날 때 날 아니 좃앙 완게 만든, 올 일은 나날 날 좃앙 읍

212) 읍드레: 옆으로

213) 벗견: 벗겨서

214) 좃앙 덩겅이난: 찾아서 다녔으니

215) 굴묵낭: 느티나무

216) 방에: 방아

217) 절깃대: 절구공이

218) 내걸천: 내면서.

219) 툃허게: 탁하게.

220) 올라뵈: 열어두고

221) 각시덜토: 각시들도

222) 덩겅이난: 다녔으니

223) 옆더전: 배를 바닥에 대고 쓰러지다.

디가?” 경 허난.

“나 꺾사²²⁴) 당신님 들어올 때에 그만 썩 저만 썩 글은 말에 애돌안²²⁵) 울 없수과? 여자엔 헌 건 양, 동산에 앓앙 소피²²⁶)를 봐도 치메깍²²⁷) 짓을 줄 모르는 건, 여자의 무음 아니파?” 허난. 강림이가 와들랑탕 일어나는 거라.

일어난. 아이고, 손 심언

“이 사름아, 저 사름아. 나, 자네 그만썩 글은 거 애돌안 울거민, 나 이디 뭇 허레 오르고? 그게 아니고. 나, 저승 염라왕 잡으레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저 사름 얼굴이나 보양 가젠 나가 마지막 길을 오랏노라.”

허난.

“게문 저승은 무신거 허레 값수과?”

“염라왕 잡으레 값저.”

허난.

“게난 저승 가렌 헌 본멘 줍데가?”

아이, 내어 논 건 보난. 흰 종이에 검은 먹글이라. 그때엔 그걸 갖영 연휘못 디 우터레²²⁸) 치돌안 올라산 거라.

“어떻 헌 판삽니까? 어떻게 헌 슝똥니까? 이 글은 이상²²⁹) 글 아니우파. 저싱 글은 붉은 거에 흰 글을 써야 저싱을 가는 법이우덴.”

게난. 그때엔 맹전(銘旌), 우리 이제 맹전허는 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 경 허연 그 법으로 이제 맹전법이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이고. 경 헨 그거 들러 앓언 집이 완. 아이고, 이거 살아도 막번, 죽어도 막번 호강이난. 옷이나 이제랑 멘들안 입전 보내주겐 허연. 남방사주(藍紡沙紬) 저고리에 북방사주(白紡沙紬) 말바지에, 별통 행경(行纏)에, 웨코 접은 백농(白綾) 보선²³⁰)에 이제 출려 놓고, 한산 모시 두루마기에 이제 남수와단(藍水疋 서단쾌지(快子) 출려 난. 이제 그거 허여 놓고, 이제 가명 또 베고프른 어떻허리 헨. 강남서 들어온 쫘끄만²³¹) 멧시리²³²)에, 일본서 들어온 쫘끄만 멧숫디²³³)에 이젠 시양삭삭 고운 쓸 굴안, 초징, 이징, 삼징 놓안 시리떡²³⁴)을 친거라. 떡 치언. 제일 우잇층은 앓아 놓안, 문전에 강 스지 삼장부떠 슬고, 절 삼베 허고,

224) 꺾사: 이제 막. 금방.

225) 애돌안: 마음으로 섭섭해 노여워하다.

226) 소피: 소변

227) 치메깍: 치맛자락.

228) 우터레: 위쪽으로.

229) 이상: 이승

230) 보선: 버선

231) 쫘끄만: 자그마한

232) 멧시리: 시루

233) 멧숫디: 솔에

234) 시리떡: 시루떡

“우리 낭군님 저승가는데 질 인도시켜 줘서.”

허연 허고, 또 훈층은 떼어 놓안, 조왕할마님 한티 간 이제 그추룩²³⁵⁾ 굴안에²³⁶⁾ 스지 삼장 슬고, 제일 아랫 건 떼어 난 강림스제님 가명 시장기 멀릴 걸로²³⁷⁾ 포따리²³⁸⁾에 툃툃허게 썩. 다 출리단²³⁹⁾ 보난. 강림이 큰 각신 옷 멘들저²⁴⁰⁾, 떡 멘들저 허단 보난. 동세백이²⁴¹⁾ 히영허게 붉아가는 거라. 날이. 구들에 완 보난, 강림스제는 막 코만 굴멍 잠서.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훈저 일어 납서. 저승질허고, 군대서 오랜 허는 일은, 대신도 못강 본인 백인²⁴²⁾ 못 갑니다. 훈저 일어 납서.”

일어난 보난, 천하독(天下鷄)은 목을 들어 쯤지반반²⁴³⁾ 울고, 지에독(地下鷄)은 출릴²⁴⁴⁾ 치영²⁴⁵⁾ 구구구구 대명천지가 붉아오는 거라.

아이고, 큰일났젠. 이젠 큰각시 허여논거. 옷 즈근즈근 문딱²⁴⁶⁾ 입고, 떡 시장기 몰릴 거 허여논거 포따리에 허엿이난 존등들에²⁴⁷⁾ 툃허게 묶으고. 큰각시 신디 곤는 말이

“설은 정네야, 멩 질게 살았이라. 살았이민이 나 강 오랑 검은 머리 백발이 뉘도록, 이제 파뿌리가 뉘도록 살겐.”

게 굳은 언약을 허여 뉘. 올레 곧 나사난 어떤 여자가 빈허벅 전 이레 주악, 저레 주악 험서. 게난 그 여자는 강림이가 저싱감덴 말은 들어신디게 그때 나가는중 몰란, 확허게²⁴⁸⁾ 나강 보난 강림이 나오난. 어드레, 그자 7짜사젠²⁴⁹⁾ 현게. 이레 주악, 저레 주악 헤진 거주게. 게난 강림이가 삼각산(三角鬚)을 거슬리고, 봉에눈(鳳眼)을 브릅뜨고 정동 7튼²⁵⁰⁾ 풀딱지²⁵¹⁾를 확허게 걷어 난. 주먹으로

“여자엔 현 건. 꿈에만 시꾸와도²⁵²⁾ 새물(邪物)인데 왜 강림이 저승 가는 길

235) 그추룩: 그렇게

236) 굴안에: 말하고서

237) 멀릴 걸로: 없앨 것으로

238) 포따리: 보따리

239) 출리단: 차리다. 준비하다.

240) 멘들저: 만들저

241) 동세백이: 이른 새벽에.

242) 본인 백인: 본인 밖에는

243) 쯤지반반: 고요한 밤의 닭 울음 소리.

244) 출리: 꼬리를

245) 치영: 치면서

246) 문딱: 전부

247) 존등들에: 잔등이에. 허리부분에.

248) 확허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꼴.

249) 7짜사젠: 비켜서려고

250) 정동 7튼: 청동(靑銅) 같은.

251) 풀딱지: 팔뚝

252) 시꾸와도: 나타나도. 보아도.

에 어떤 여자가 빈 허벅을 지어서 어지르느냐고.”

말이여. 계난 주먹으로 그 허벅을 와쌍헝게²⁵³⁾ 벌러 불었어. 겐 벌러난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어나민, 그 구들에 사기그릇 허여근에게 이제 와쌍와쌍 벌르고, 푸대더레²⁵⁴⁾ 사기그릇 놔근에 방에 강, 와쌍와쌍 소리나게 시리 이제 그 법지법을 마련해두고. 이젠 곧 올레 나산 가노렌 허난, 어떤 청토산이 마고할 마님, 등 수구룩허게²⁵⁵⁾ 굽고 허연. 아그랑 작데기²⁵⁶⁾ 불 붙어난 거 짚으고, 불 붙어난 행주치메 돌려 입고, 계난 앞이 막 걸엄서.

‘아이고, 저 할마님은 어평헌 할마님인고. 저 할마님이영 말 벗어나 허연 혼디 가카.’

허연. 강림이가 제게 가가민 할마님도 제게 걸어불고, 앞이 가는다. 강림이가 할망 미치젠²⁵⁷⁾ 뜨게 가가민, 할망도 뜨게 가고. 겐 가단 가단 높은 동산 잇이 난.

“호이~”

허멍 할망이 앓으난. 강림인 절을 허울허울 삼 배 허난.

“아이고, 어평헌 도련님이 넘어가단 이런 똥내 지렁내 나는 늪은이안티 절을 했수꽈?”

허난.

“아이고, 말도 맵서. 우리 집이도 강 보민양 백난 하르바님, 할마님 다 잇수다. 읍서 배고판 시장기나 멀령 가게마씀”

아, 내 눈 건 보난. 똑궂뜨²⁵⁸⁾ 떡이라.

헛 솜씨에, 헛 솟판에 솜씨라.

“어평허난 할마님 떡허고, 나 떡이 영 똑궂뜨우꽈²⁵⁹⁾?”

허난에

“강림아, 모른 소리 말라. 난 느네 큰각시네 집이, 조왕할망인디, 너 허는건 행실이 궤썸허더라만은²⁶⁰⁾, 너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이 기특허난 너 저승질 굴아주젠²⁶¹⁾. 너 큰각시 생각허영 나오랏이메. 나 떡이랑 너가 먹영 가고, 너 떡이랑 쌍²⁶²⁾ 가당 보민, 문전하르방이 잇일꺼메²⁶³⁾ 문전하르방 안네영 저승질

253) 와쌍헝게: 유리 따위가 깨지는 소리. 과자나 호두 따위를 바삭 깨무는 소리.

254) 푸대더레: 포대에

255) 수구룩허게: 고개나 등을 어느 정도 구부리다.

256) 아그랑 작데기: 오그랑 막데기

257) 미치젠: 따라가려고

258) 똑궂뜨: 똑같은

259) 궂뜨우꽈: 똑같습니까.

260) 궤썸허더라만은: 궤썸하더라만은

261) 굴아주젠: 말해주려고

262) 쌍: 싸서

263) 잇일꺼메: 있을테니

골아도렌²⁶⁴) 허라.”

허연.

“아이고, 고맙수덴.”

허연. 그 떡 갈라 먹언. 절을 허울허울 삼베 헤여된. 아, 고개 들렁 보난 할망이 감감무중이라. 엇어. 피라곡절(必有曲折)허다 허연. 이젠 또 가노렌 허난. 담뱃대 진진헌거 물고, 헤영 헌 하르바님이 높은 동산에 잇어. 간 절을 허울허울 삼베 허난.

“아이고, 어디 도련님이 넘어가단 영 헌 늙은이한테 절을 허었수과?”

“우리 집이도 백난 아버지, 어머니 다 잇수다. 옴서 하르바님, 우리 시장기나 멀령 가게²⁶⁵).”

게 배 고프고, 시장 허난 시장기 멀리젠 떡 내 놓은 건 보난 7튼 떡이라. 이젠

“어떻허연 하르바지 떡허고, 나 떡 영 7뜨짜?”

허난에.

“난 너 큰각시네 문전하르방인데, 너 허는 건 귀썸허드라만은 너이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이 기특 허난. 너이 큰각시 생각허난 저승질 골아주젠 나왔다.”

게난

“너 걸랑, 너 떡이랑 너가 먹영가고, 나 떡이랑 지금부터 너 들어갈 질은 일흔으덥 공 거름질로 세언 강. 들어강 보민. 질 님으단 허기버천²⁶⁶) 질토레비²⁶⁷) 질감관이 이원스제가 이제 누웠이메 너 그 떡을 주영. 시장기 멀리게 허영 저승질 골아도렌 허라.” 허연.

“경 험서.”

허연. 하르바님이 손 심언 그뻐 질을 다 골아준 거라.

“강림아, 요 질은 보라. 시왕감스 신병스(十王監司 新兵使)가 들어간 질이여. 요 질은 보라. 원왕감스 원감스(元王監司 元監司)가 들어간 질이여. 저 질은 보라. 짐추염나태선대왕(金緻閻羅泰山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요쪽 질은 보라. 범7튼 스천대왕(四天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요 질은 보라. 츠지 진강대왕(秦康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이제 초강(初江), 제삼(第三) 송결전(宋缺典)에, 오간(吳官), 다섯 염나대왕(閻羅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으섯 번성대왕(變成大王)이 들어간 질. 일곱 태선대왕(泰山大王), 으덥편. 경 형. 아홉 띄시 열, 십전대왕(十戰大王)7지 들어간 질이여. 강림아, 요 질은 보라. 천양처스(天皇差使)가

264) 골아도렌: 말해달라고

265) 멀령 가게: 없애고 가자.

266) 허기버천: 매우 시장하여 힘에 겹다.

267) 질토레비: 길을 보수하는 사람.

들어갈 질, 요 질은 지하차스(地下差使)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인왕차스(人皇差使) 들어갈 질, 요 질은 원직. 연직(年直), 월직(月直), 일직사자(日直使者)가 들어갈 질이여. 요 질은 보라, 황스제(黃使者)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적스제(赤使者)가 들어갈 질. 요 질은 보난 옥황방나장(玉皇방나장)이 들어갈 질. 요 질은 저승 이원스제²⁶⁸)가 들어갈 질. 요 질은 보난, 강림이 들어갈 질을 보난, 개미 혼 뿐 현 질. 이건 너 들어갈 질이여.”

허난

“아이고, 하르바님아, 이 질을 어떻게엔 날 7라²⁶⁹) 들어가렌 했수과?”

허난

“그 질을 너가 헤우청²⁷⁰) 들어가사 헐거엔.”

계난,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 죽으면, 심방 빌어단 질치곡 허는 것이 죽을 때는 강림사자님허고 데려서 저승을 가는 때문. 강림사자 들어가는 질이 하도 나쁜 질이라부난, 이제 그 질을 님으멍 들어가는 거. 그 법으로 질치는 법이 뉘고. 겐 그 질을 가난

동드레 왕상허게²⁷¹) 벌은 건, 서더레도 확허게시리 눅지고. 서이 왕상허게 벌은건 동더레도 눅지고. 경 제우제우 헤우천 들어간 보난, 질토레비 질감관 이원스제가 질 님으단 허기버천 누운 거라.

“아이고, 이거 나 점심밥 먹엉, 저 떡 먹엉 시장기 멀립서.”

허난. 하도 베고프난, 듣도 뵈도 안허영 그걸 막 먹은거 아니. 먹언 이제 정신 출리난.

“당신 누군데 여길 왔습니까?”

허난

“나는 인간 짐치원 몸 받은 강림이가 뉘네다.”

허난

“어떻헌 일로 이딜 옵데가?”

허난

“난 염라왕 잡히젠 이디 왔수다.”

허난

“여기는. 이거, 인간이 오는 길이 아니고, 나는 저싱 염라왕이 인간에 원복장 제네 집이, 굿허는 디 느려사젠²⁷²) 허난, 질을 님으단 허기버천 여기 누웠수

268) 이원스제: 저승의 사자(使者) 이름.

269) 날 7라: 나에게

270) 헤우청: 뜯어서.

271) 왕상허게: 풀, 마른 가지, 가지 따위가 거칠게 널려져 있다.

272) 느려사젠: 내려사려고

다. 계난, 경 말양 나영 훈디 이디 샷단양, 스오시가 뉘결랑 이디서 잡합서.“

허난

“아이고, 아이 뉘네다. 아멩헤도²⁷³⁾ 저승을 강 와사주. 이디 샷단 아니 뉘니덴.”

“경 허건양. 나도 놈이 거 공거 먹고 공거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난, 속적삼이나 입영 읍디가?”

허난

“예. 입연 왓수다.”

“이레 벗읍서, 계건.”

경 허연. 이구산²⁷⁴⁾더레 올라산 초흔, 이흔, 삼흔을 쉼연. 계난 그 법으로 사 람 죽으민 옛날은 지봉상상 즈추무루에 올라강 속적삼 들렁 ‘누구 누구 보~’ 허멍 혼을 불릿주만은. 요즘은 또 이젠 장례식장에서 허던가, 경 안허민 어디 묻으레 강. 산에 강 혼 불렁. 경 헨 이젠 혼 불려주난, 저승 초군문에 들어간 거라. 가신디. 아닌게 아니라 와라차라 앞엔 선배, 뒤엔 후배, 뉘 일과라 일기 생애. 막 와라차라 와가난

‘아, 저기 염라왕이 잇구나.’

허연. 첫 번째 가메²⁷⁵⁾를 심어 보난, 빈 가메. 두 번째도 심연 보난, 빈 가 메. 세 번째도 빈 가메. 네 번째도 심연 보난 빈 가메. 다섯번 쨰 벌련독계(別輦獨驕), 베락 천둥 소리에 와지끈 땅에 심연 보난, 염라왕이 앓은 거라. 아이 고, 보난 눈은 통대왈 만인 허고, 말관 쓰고, 입은 작박²⁷⁶⁾ 만이 허고, 코는 물똥코²⁷⁷⁾에. 혼 번 보고, 두 번 므스완 볼 수가 없어. 줌짜²⁷⁸⁾ 헨 물러산거 라. 강림이가 생각허기를

‘때는 요 때다. 요 때 안 잡혀버리면 이 노릇을 어평허린.’

므습고시고²⁷⁹⁾ 놀려들언 흥사줄을 그자, 율이 샷단 다르르 풀연 간, 스문절 박을 풀에 간, 탁 헨거라 계난. 아이, 염라왕이 용심을 내뉘,

“야, 도대체 누게가 나, 저승왕인 나를 잡히느냐?”

계난. 강림스제가 허는 말이,

“예. 저승왕도 왕이요. 이승왕도 왕이요. 나는 인간에 짐치원 몸 받은 강림입 네다.” 허난

273) 아멩헤도: 아무래도

274) 이구산:

275) 가메: 가마

276) 작박: 주걱.

277) 물똥코: 말똥같은 코.

278) 줌짜: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다.

279) 므습고시고: 무섭더라도

“뭘 일로 나를 잡히느냐?”

“우리 인간에 과양생이가 있는데, 훈 날 훈 시에 아들 삼형제 낳고, 훈 날 훈 시에 아들 과거 헨 오고, 훈 날 훈 시에 다 죽으난 이 절체를 못해서 염라왕을 잡으레 왔습네다.”

허난

“야, 강림이 역력하고 똑똑하다.”

경 헨 이제 인정 주난. 염라왕이 강림이한테 인정을 준거주. 경 허난. 이전 인정 받안, 홍사줄 풀련.

“경 말앙이. 강림아, 나영 훈디²⁸⁰⁾ 아랫녁에 원복장제 단똥아기 다 죽어간 전새남²⁸¹⁾ 허없이메 글라, 그디, 굿허는 디나 강, 굿이나 받아먹영 가게.”

허난.

“경 험서.”

허연. 똥라앗언²⁸²⁾ 간 보난. 올레에 간 보난 허덕이엔 현 심방이 굿을 험인 디, 저승왕도 읍서. 이승왕도 읍서. 뉘, 처스님네도 읍서 헤도, 강림이 읍센은 허지도 안허여. 올레에 쓸 케우리명도²⁸³⁾ 부애가 풋죽굳이 난 거라²⁸⁴⁾. 딱 시²⁸⁵⁾ 홍사줄 내어난 굿허던 허덕이엔 현 심방을 스문절박을 톤톤허게 시겨볼 엇어. 경 허난. 그 중에서도 똑똑헌 신소미가 확허게 나사며 허는 말이,

“어제, 그지게 신관쳐스, 강림쳐스도 살려 읍서.”

허연 쓸 케우리난 그때엔 홍사줄을 풀어가난, 죽어가던 큰심방이 프룻프룻 살아난거 아니. 게난 옛날엔 아마도 시왕맞이 험 때는 시왕 당클만 메연 헤낫 인고라, 강림스제 나시²⁸⁶⁾ 아래 혼저 스지 상 싱그라²⁸⁷⁾, 그다음 앓아 살 거 난²⁸⁸⁾ 떡도 험끔씩²⁸⁹⁾ 험끔씩 멘들젠²⁹⁰⁾ 허민 시간 오래 걸릴거난애, 훈꺼번 애 그자 담아난 시루떡 치여근에게²⁹¹⁾ 그레 올리라. 경 헨 이전 문딱 강림스제 앓을 자릴 멘들어노난²⁹²⁾. 시왕 당클 알로. 상당도숙으난²⁹³⁾ 염레왕은 청댓 썩²⁹⁴⁾ 고고리²⁹⁵⁾로, 변장을 허연 올라사분 거라. 게난 강림이는 암만 좇아봐도

280) 훈디: 함께

281) 전새남: 무구와 제기가 없어서 빌어서 하는 곳. 환자의 병이 나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곳

282) 똥라앗언: 따라서

283) 케우리명도: 멀리 흠뿌리거나 획 내던지면서

284) 부애가 풋죽 굳이 나다: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다는 말.

285) 딱시: 다시

286) 나시: 몹

287) 싱그라: 심어라. 제상을 차려 세움의 뜻.

288) 앓아 살 거난: 앓아야 할 거니까

289) 험끔씩: 조금씩

290) 멘들젠: 만들려고

291) 치여근에게: 찌서

292) 멘들어노난: 만들어노니.

293) 상당도숙으난: 굿을 마쳐 당클과 제상을 정리하니.

염레왕이 엇어져분거 아니. 아이, 이 노릇이여 이제 이꺀지 와놓고 이제 어드
레 엇어져불영 나 헛걸음헨 이 노릇을 어떻허연 좋고. 푸리 몸으로 환생허연
청대설 고고리 우에 간 턱허게 앓으난

“야, 강림이 첨 역력허고 똑똑허다. 흐저²⁹⁶⁾ 느려글라²⁹⁷⁾, 아래 느려글라.”

허연 느려완

“강림아, 느 몬저 가시라. 가시문이²⁹⁸⁾. 나, 널모레 스싯날 당허민 틀림도엇
이 나 동연(東軒)마당에 연단우이 느려사마²⁹⁹⁾.”

허난

“아이, 아니웁네다. 아멩헤도³⁰⁰⁾ 가사주양³⁰¹⁾. 아니가민 나 인정을 헤 줍니
까?”

허난

“가시라. 가시문 나가 틀림엇이 약속을 지켜마.”

“나, 혼도 불러불고 허난양. 나, 인간에 가질 못헙네다.”

허난.

“돌아사라.”

허연. 앞인 임금 왕 제, 뒤엔 놀룬 비 자를 써 주고, 백강생이³⁰²⁾ 하나 내어
주멍

“이 강생이 안앙 가당, 웨 나무³⁰³⁾ 웨 두리³⁰⁴⁾에 행기수³⁰⁵⁾가 잇이메, 강생
이 노민 팡허연 들어가건, 니도 흐디 강생이 톨랑 팡허게 들어가민 느 몸천³⁰⁶⁾
잇인디 가 진다. 경 허민 느 몸천, 그레³⁰⁷⁾ 삼화혼정(三化魂情)³⁰⁸⁾ 들영 경 허
연 느네 집이 좃양 가라.”

일러 주난

“경 헙셴.”

허연. 그날 안 내려오민 큰일납니다예. 막 굳은 언약을 헨 거라. 경 헨 이젠.

294) 청댓설: 큰곳할 때 마당에 번기를 달아 높이 세우는 대(竹).

295) 고고리: 꼭대기.

296) 흐저: 어서 빨리.

297) 느려글라: 내려가자.

298) 가시문이: 가있으면

299) 느려사마: 내려사마.

300) 아멩헤도: 아무래도

301) 가사주양: 가야지.

302) 백강생이: 흰 강아지.

303) 웨 나무: 한 그루의 나무

304) 웨 두리: 한 개의 다리

305) 행기수: 늦그릇에 담긴 물. 행기물

306) 몸천: 몸 형체

307) 그레: 그리로. 그곳으로.

308) 삼화혼정: 인간은 육신은 하나요 혼은 셋이라 함.

강생이 안아 앓양 오단³⁰⁹), 웨나무, 웨드리에 드물련³¹⁰ हु디 들어가난, 몸천이 혼 불러부난 강림이 몸천만 잇인 거라. 그땐 그 몸천들에 삼화혼정(三化魂情) 들언. 일어난 보난 동도 왯왯, 서도 왯왯, 남도 왯왯, 북도 왯왯. 천지가 컴컴한 밤이라. 영 멀리 베려보난³¹¹), 불이 베롱허게³¹²) 싸진 집이 잇이난.

‘아이고, 오늘밤이랑 저 집이나 좃안 강 어뎡 마당 구석에라도 앓앗당 널랑 큰각시 사는 집을 좃양 거주³¹³.’

허연. 가단 보난 마침 큰 각시가 시결명 잡식³¹⁴) 허연, 식계(祭祀) 넘어난 올레 완 후후 데껴뒀³¹⁵) 안으로 들어 가명 문을 툄툄허게 증가부는³¹⁶) 거 아니. “이 문 올라. 이 문 올라.”

막 허난에

“앞집이 김서방네건 널랑 읍서. 식계(祭祀) 테물³¹⁷) 안네쿠다. 뒷집이 이서방이건 널랑 읍서. 식계(祭祀) 테물 안네쿠다.”

허난.

“난, 이 김서방도 이서방도 아니고이. 나, 강림이여.”

허난.

“아이고, 첨 우리 낭군은 저승 간 양 연삼 년 넘어난 오늘 이거 첫 식계(祭祀) 우다.”

허난.

“난, 저승 간 사흘 백이³¹⁸) 아니 살았저 만은 건 뭇 말이고?”

허난. 하도 경 헤도 강림이노렌 막 헤가난.

“경 허건, 우리 낭군이 적실허면 내가 본메 본짱 논게 잇이난 창고망³¹⁹)으로 썩자(快子) 썩³²⁰)이나 내몰아 뵙서.”

허난. 이제 창?망으로 썩자 썩 영 내모난, 바농 훈 썩³²¹)을 본메본짱³²²)으로. 그 옷 지을 때에 본메본짱으로 논게 문딱 삭단, 바농 하나가 남은 거라.

309) 앓양 오단: 안아서 가지고 오다가.

310) 드물련: 들이밀어서.

311) 베려보난: 바라보니

312) 베롱허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켜지다.

313) 좃안 거주: 찾아가야지.

314) 시결명 잡식: 제사 끝낸 뒤에 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잡신(군졸)에게 먹으라고 바깥에 던지는 일.

315) 데껴뒀: 던져두고.

316) 증가부는: 잠가버리는.

317) 식계 테물: 제사를 치르고 남은 음식.

318) 사흘백이: 사흘 밖에

319) 창고망: 창구멍

320) 썩: 옷의 깃.

321) 훈 썩: 한 썩.

322)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게난,

“아이고, 내 낭군이 적신티덴³²³.”

이젠 문을 다 올안. 게난 이제 강 아버지도 돌아 오라³²⁴. 어머님도 돌아 오라. 형제간 덜도 돌아 오라. 이구십팔 열으담 각시도 돌아 오라. 문딱³²⁵ 돌아 오라 허난. 아바진 들어오명 느단 흘목³²⁶을 잡안 앓안 비새 7찌 울고, 어머님은 왼 흘목을 잡안 비새 7찌 우는 거라.

“아바지, 아바진 나 엇이난 어떻 험데가?”

허난.

“아이고, 곧도 말고³²⁷, 일르도 말라. 느 엇이난³²⁸이 무디무디³²⁹ 마다 느 생각이 나라.”

허난.

“아바지는 느단 흘목 잡아부난, 성주성편(姓主姓便)을 마련허고. 아바지는 나 생각을 무디무디 헤부난. 아바지 살당 살당 돌아가시민 왕대, 방장(喪杖)대 헤영, 무디무디 아바지 생각허명, ‘아이고, 데고’ 허영 아바지 공을 갓아 드리쿠다.”

겐디, 아바지는 아멩헤도³³⁰ 남자의 부모라 조식들 안티라도 영 감싸주는 일이 엇영 그냥 팍팍 곁아부난, 시무옷³³¹을 헤도 아부지 죽은 때 입는 시무옷은 알단을 아니 감추와. 감추질 안허여.

“겐 이젠 어머님은, 나 엇이난 어떻 험디가?”

허난.

“아이고, 동더레 돌아사도 가슴이 멉멉, 서더레 돌아사도 가슴이 멉멉. 원, 그냥 가슴이 멉멉허연 살 수가 엇어라.”

허난. 어머님은 왼 흘목³³²을 잡아부난 웨주웨편을 마련허고.

“어머님,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동더레 벌은 머구냥³³³ 방장(喪杖)대헤영 어머니 생각 멉멉허게시리 어머님 생각허명 연삼 년 공 갓아 드리쿠다.”

겐디, 어머님 돌아갓이민, 어머니 조식들 곁은 일 헤도 항상 감추와. 아이고, 영영 말을 감추완 헤나부난 이 시무옷 보민, 요즘은 신식이난 다 박아불어서라

323) 적신티덴: 틀림없이 확실하다.

324) 돌아 오라: 데리고 오라.

325) 문딱: 모두. 전부

326) 느단 흘목: 오른쪽 손목.

327) 곧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328) 엇이난: 없어서

329) 무디무디: 마디마디(節節).

330) 아멩헤도: 아무래도.

331) 시무옷: 남자 손자 상주의 복옷.

332) 왼 흘목: 왼쪽 손목.

333) 머구냥: 머귀나무.

만은, 시무옷을 보민 어멍 죽은 때에는 영 감싸근에게³³⁴⁾ 박앙잇고. 아방 죽으
민 그냥 년들년들 현양 그냥 잇고. 게난 형제간들 돌아오라 허난. 형제간들 돌
아오난

“나 엇이난 어뎡 헤니?”

허난

“형님아, 모른 소리 맙서. 어디 간 우리만 잘 먹고, 잘 쓰곡양 헐 때엔 형님
적시도³³⁵⁾ 우리가 갈라먹고, 갈라쓰난, 더 하난, 막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어디
덴기단 친구들신디나 선배들신디라도 메나 복삭³³⁶⁾ 얻어 맞을 때엔. 아, 이럴
때 우리 형님도 잇엇이민 권력이 좋으난 펜벙³³⁷⁾ 헤줄걸. 형님 생각 납디다.”

허난

“아이고, 형제간은 옷 우잇 브름³³⁸⁾이여. 걸름³³⁹⁾만 못 허다.”

거난 형제간은 수리대, 방장대도 수리대를 주는 거라. 게 수리대 짚으면 거
형제간이나 조케나 경 되는 거. 경 헤연 이젠 마련헤여 될.

“이구십팔 열으덱 각신 어디 가시넨?”

허난. 그날 그 시간으로 문딱 서방들 얻영 도망들 갖젠 허난. 이젠 큰각시?
라

“자넨, 나 엇이난³⁴⁰⁾ 어뎡헤니?”

허난

“아이고, 곤도 말고 일러도 맙서. 잇인 때엔 각시만 얻영 덴기명 부수 날³⁴¹⁾
속상허고, 즐들리왓주 만은³⁴²⁾ 엇이난 양 훈 묵음 훈 뜻 허영 소상도 냉겨수
다, 대상도 냉겨수다. 나 첫 식게도 허엿수다. 정절수절 직허영 앓젠 허엿수
다.”

허난

“경 허난, 열 각실 얻영 덴겨도 큰각시가 큰각시여.”

허연

“아버지도 갑서. 어머님도 갑서. 이제 형제간들도 가라.”

문딱 보내어 될. 시집가고, 장가를 가도 부부간에 관계를 안 맺언 각시만 얻
영 돌아덴겜인디, 그날 밤이 이젠 둘이가 누원. 열두 스랑을 다 풀리운 거라.

334) 감싸근에게: 감싸서.

335) 적시도: 몫도.

336) 복삭: 마구, 힘껏, 마음껏.

337) 펜벙: 편벽. 한쪽 편을 들다.

338) 옷 우잇 브름: 옷 우에 바람.

339) 걸름: 거름.

340) 엇이난: 없으니까.

341) 부수 날: 많은 날.

342) 즐들리왓주 만은: 걱정시켰지 만은.

막, 말에 말 붙연가젠허민

“좁쌀³⁴³ ㄱ찌 스랑³⁴⁴ 스랑 줌진³⁴⁵ 스랑, 좁쌀 ㄱ찌 줌진 스랑, 스랑 스랑
등근 스랑, 보릿쌀 ㄱ찌 등근 스랑, 모밀쌀³⁴⁶ ㄱ찌 귀난 사랑이여. 곤쌀³⁴⁷
ㄱ찌 궁근 사랑이여.”

경 허는다. 경 헨 허단 보난. 뒷날 아침이 동성방이 히영해도³⁴⁸ 안 일어나
분거라게. 붉는 처리³⁴⁹ 물란. 계난 과양생이네 두가신, 어느 제민 강림이가
염라왕을 둘안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해 줄 건고, 메날³⁵⁰ 강림이가 앓인가, 안
앓인가. 강림이 큰각시 집 메날 나드는 거라. 강림이가 앓인가, 안앓인가. 빨리
와사 지네³⁵¹ 애기 덜 해결 헐 거난.

경헌디³⁵², 그날 아침인 간 보난, 문을 툠툠 증갓주게. 이 시간 됴민 큰각시
가 일어난 덩기는다 어뎡허단 영 헛이고 허난. 손가락에 춤 불란³⁵³ 창 ㄱ망을
똥환³⁵⁴ 보난. 몸천은 하나고, 머리는 두개라. 아이고, 이거 저승 가노렌 해될.
우리가 속앗구나. 밤인 됴민 큰각시영 혼 이불 쏘곶에 짐자고, 낮인 됴민 펡퐁
뒤에 간 곱안³⁵⁵ 살암덴. 거난 오곶³⁵⁶ 짐치원신디 간 밀고(密告)를 해분거 아
니. 계난 이젠 또 큰칼 씨완 강림일 또 동안마당 연단 위에 꺾어단 세완에 죽
일팔로 막 허는 거라.

“넬 모리 스오시ㄱ지만 기다령 염라왕이 아니 내려사건 날 죽여 줍서.”

허난. 아닌게아니라 스오시가 됴여가난, 동으로도 날씨가 거뭇거뭇 해가고,
서으로도 거뭇거뭇 해 간게. 삽시간에 ㄱ랑 빗발 또록또록또록 털어지단 그냥
대오방 수천리 비가 넘실넘실 막 내려오는 거라. 겐 비가 막 오난. 이젠 너른
목에 번개 판짝 허듯이 허난. 좁은 목에 와지짱짱허연 벼락치난. 그 벼락 천둥
소리에 염라왕이 연단 위에 탁 산보난. 비오고 벼락 천둥소리에 문딱³⁵⁷ 변장
들 허멍, 다 그디 잇인 사람들 곱아붙어신디³⁵⁸. 강림이는 이디 큰칼을 씨와노
난 돈도³⁵⁹ 기도³⁶⁰ 못허연 ㄱ만히 그 비 맞으멍 앓은 거라.

343) 좁쌀: 좁쌀.

344) 스랑: 사랑.

345) 줌진: 가는.

346) 모밀쌀: 메밀쌀.

347) 곤쌀: 흰 쌀.(白米)

348) 히영해도: 하얗게 되어도

349) 붉는 처리: 밝는 것을.

350) 메날: 매일.

351) 지네: 자기네.

352) 경헌디: 그런데.

353) 춤 불란: 침 묻혀서

354) 똥환: 똥어서.

355) 곱안: 숨어서.

356) 오곶: 곧. 즉시.

357) 문딱: 모두.

358) 곱아붙어신디: 숨어버렸는데.

“강림아, 너 이거 뭐허는 짓이냐?”

허난.

“아이고, 염라왕님아, 일 분 일 초만 늦었이민 머리털 하나가 7류왕³⁶¹) 죽을 뻔을 헛습니다.”

허난.

“야, 저 집은 저거 누계가 지었이니?”

허난.

“강태공 서목시가 지었수다.”

“흔저 불러오라.”

불러단,

“저 집 지을 때에 너, 지동³⁶²) 멧 개 세왔느냐?”

허난

“스물네 지동을 세왔수다.”

허난

“흔저 세어보라. 느 세운 거 맞으냐?”

세단 보난 굴목³⁶³)에 공깃지동³⁶⁴)은 안 세운 거라. 스물다섯 개가 잇인 거라. 지동이.

“굴목에 공깃지동은 아니 세왔수다.”

허난. 염라왕은 벌써 짐치원이 그걸로 변장 헨 간 걸 알았주게. 경 허연.

“툽 앓아단³⁶⁵) 싸불라³⁶⁶)”

허연. 툽 앓단 싸가난, 즈짓피(紫朱血)가 불끗허게³⁶⁷) 나난, 관디(冠帶) 섭으로 확 닦아부난 별건헌 거 아니. 이디 필 닦아부난. 게난 그 법으로 우리 심방 델토 큰긱허영 염라왕 청허는 곳 헐 때는 흥색, 흥포관디를 입어야 염라왕을 청허는 거고. 이젠 짐치원이 나오난, 염라왕 허는 말이,

“어떻헌 일로 날 청헛디가?”

허난.

“아이고, 스실(事實)은 야카야카허연 과양생이네 이만저만 허난 청헛수덴.”

허난,

359) 돈도: 달리지도.

360) 기도: 기지도.

361) 7류왕: 가려워서.

362) 지동: 기동.

363) 굴목:방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주식의 아궁이.

364) 공깃지동: 벽장 위에 가로 건너 자른 나무를 받치는 기둥.

365) 앓아단: 가져와서.

366) 싸불라: 잘라버려라.

367) 불끗허게: 발긱하게.

“과양생이네 불러들이렌.”

허연 불러오난,

“너네 애기덜 어디 묻었느냐?”

허난

“앞बाट, 뒷बाट 출병헛수다.”

“겐 팡 보라.”

간 팡 보난. 애기랑 말앙 아무것도 엇어 편편이라.

“영 헤도 바른말 못허것느냐?”

허난

“아이고, 우린 양 죄엔 헌건 양 손톱만이라도 죄가 엇수다.”

허멍 하도 허난.

“경 허민. 알았저. 어른, 아이 막론허고 이 동네에. 이 고을에 사람덜 족박들은 이 함박들은 이 문딱 나오렌.”

경 헨. 주천강 연화못 그 버물왕 아들들 드물라분³⁶⁸) 물을 다 푼 거아니. 경 허연 다 푸단 보난, 빼만 솔그랑허게³⁶⁹) 남은 거라 애기덜이. 염라왕이 서천꽃बाट³⁷⁰) 도올란³⁷¹)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오장 오를 꽃, 사름 생길 꽃, 말 굴을 꽃. 이제 꽃을 문딱³⁷²) 사름 생길 꽃을 푹푹푹 푼어다 놓안. 차례데로 놓안 송악낭³⁷³) 막데기로 연 세번 착착 후리난, 애기덜이 와들레기³⁷⁴) 일어나 멍

“아이고, 봄 즈이라 너미³⁷⁵) 자젓우다.”

허난, 염라왕이 울면서

“설운 애기덜아, 느네덜 물 아래 누원 얼마나 고생 하영 헤엿이니. 헌저 보 고픈 어멍국도 좃앙 가라, 아방국도 헌저 좃앙 가라.”

경 헨 이젠 보내 될.

“너네덜 영 헤여도 바른말을 못 허것느냐?”

과양생이네 두가시³⁷⁶)를 쉼앗베³⁷⁷)로 묶은 거라. 일곱 쉼에 아홉 장남을 거 느런 벌통 돌아메고 허연, 벌통 또꾸망에 돌아메고 허연. 그냥 물에, 쉼에 튀

368) 드물라분: 넣어버렸던

369) 솔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빼만 남아 있는 상태.

370) 서천꽃बाट: 환생(還生) 꽃 멸망(滅亡) 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371) 도올란: 올라가서.

372) 문딱: 모두.

373) 송악낭: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

374) 와들레기: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375) 너미: 너무.

376) 두가시: 부부.

377) 쉼앗베: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굼직하고 기다란 참바.

어가민. 별은 왕~허민 그냥 막 놀려들엉 허멍. 가시덤불마다, 돌갈퀴마다 그냥 하도 꺾언 덩기단 보난. 문딱³⁷⁸⁾ 갈기갈기 찢어지단 남은 건 뼈만 솔그랑허게³⁷⁹⁾ 남아서.

“야, 이 동네에 열, 칠 팔세 난 애기씨덜 힘때 좋다. 혼자 이레 모이렌.”

허연. 굴묵낭³⁸⁰⁾ 방에 난 독독 못안³⁸¹⁾. 거품 불언 푸~허연 불려부난. 여름 뉘민 모기가 뉘고, 칠팔월에 곡다기³⁸²⁾가 뉘언. 산 때도 사름을 벳경 먹언게, 죽어도 사름 피 빨앙 먹어. 경 허연 모기 몸으로 이젠 환생을 시기난. 이젠 염라왕은 가젠 허난. 일곱 쉼에 아홉 장남, 과양생이네 꺾언 덩겨난 거.

“아이고, 우리 사름 죽여낫젠 허연양. 어디가민 붙여주지도 안하고 경 허난. 우리 어디 강 얻어먹읍네까?”

허난.

“너네랑 사름 죽영 귀양풀이 헐 때랑 큰 상 알로, 일곱 신앙 아홉 귀양으로 얻어먹으라.”

헤 뉘. 이젠 가젠 허난. 염라왕이 짐치원³⁸³⁾라,

“강림이 나 들앙 강 쓰쿠다.”

“어딜 말잇과?”

허난

“저승 강 마쓰게.”

허난

“아이, 우리 이승도 똑똑헌 사름 잇어사 헐 거 아니꽈?”

허난.

“아이고, 경 허건양, 우리 하나씩 갈랑 가집주.”

“어떻 사름 하날 낵 두 개로 갈릅니까게.”

허난

“날랑 저승 가명 혼을 빼영 가크메, 짐치원이랑게 몸천 앳입서.”

허난. 짐치원은 혼 일은 생각허고, 두 일은 생각 못 허연

“예.”

허연. 대답을 헤 분거라.

게난 염라왕은 저승 가명 강림이 혼정 뺨 가분거 아니. 혼정 뺨 가부난. 이젠 연단 우이 오고생이³⁸³⁾ 사난.

378) 문딱: 모두. 전부

379) 솔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

380) 굴묵낭: 느티나무.

381) 못안: 찢어서

382) 곡다귀: 각다귀

383) 오고생이: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꼴. 흠어짐 없

“야, 박포수야. 저디 강 강림이?라 들어보라. 저승이 어떻 험 디라니 험 번 들어보라.”

허난. 간.

“야, 강림아, 야, 강림아, 해도 편편. 대답도 안허여. 저 강림이 봅서. 저거 저승 갖다오고렌 큰양 험양 대답도 안 했수다.”

“그 새끼 이제부터 경 큰양 헤염 건 아그랑 작데기 자락 거려밀려볼라 뒤여 지게.” 허난 아그랑 작데기 툅허게 건드난, 헛드랭이³⁸⁴) 갈라지명 코로 귀로 쉬프리³⁸⁵) 웅웅웅웅 허는 거 아니.

“아이고, 죽엇수다. 죽엇수다.”

허난. 이젠 큰각시한테 연락을 해야 뉘켄. 큰각신 어느 제민 해결 헤여된 왕, 젊은 때엔 각시만 연영 덩기명 즈들리완게³⁸⁶) 이제 나이드난 즈들리지 안허영 살 건고. 바농 허연 손으로 옷 멘들단. 편지가 온 걸 깐 보난. 죽엇젠 험 편지 라.

“아이고, 나 노릇이여.”

막, 구들에서 지만 누원 둥글명 울고, 막 누원 둥그는게 상방 다 누원 둥글 고, 마당?지 가난. 확 생각허난 이거 누게

‘거짓말 허연 허지 안했인가? 귀 소문 말앙, 강 눈 소문 허연 눈으로 강 봐 사주겐.’ 허연. 확 일어난 가젠 허난 머리가 이만이 험거라. 막 누원 둥글어부 난. 머리 확확 영영 허연. 영 허연 이거 무신 걸로 묶언 가코 허연 보리낭 확 등견 영 묶으난 확 끊어져부는 거라. 산디짚(山稻) 확 등견³⁸⁷) 묶으난, 산디짚 으로 묶으난 뉘는 거라. 질견. 게난 그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영 성복(成服)허 기 전인, 산디짚 허영 머리 묶어근엥에 우리 상제덜 경 험 덩겨난 법 마련허 고. 간 보난 진짜로 죽은 거라.

“우리 낭군 무신 거 잘못 허영 죽입디가. 저승을 가렌 허난, 저승을 아니 가 십디가. 염라왕을 잡혀오라 허난, 염라왕을 아니 잡혀 오라십디가. 무신 일을 잘못 허영 죽엇수가. 누게 나상 말을 험서.”

해도 아무도 안 나사는 거라. 게난 강림이 큰 각시가 그때에 그냥 아멩이라 도³⁸⁸) 영장도 헤 불엇이민 지금도 험걸. 그때에 초수렴(初小殮)도 허여도 섭섭 허다. 정수렴(中小殮) 허여줘도 섭섭허다. 이제 대수렴(大小殮) 헤여줘도 섭섭 허다. 호상³⁸⁹) 허연 문딱 입전 입관허여도 섭섭허다. 아이고, 이젠 또 그거 헤

이 고스란히.

384) 헛드랭이: 덩글랑이. 덩강. 덜렁.

385) 쉬프리: 퐁파리.

386) 즈들리완게: 걱정시키다.

387) 등견: 당겨서

388) 아멩이라도: 아무렇게나

쥐나난. 복 옷덜 문딱 이제랑 갈라 입지주겐, 복 옷덜 갈라 입저 쥐도 섭섭하다. 이젠 성복제(成服祭)허여도 섭섭하다. 이젠 그거 헤나난 일포(日哺) 헤여쥐도 섭섭하다. 동관(動棺)허연 산에 가명 소리들 내걸쳐 어양어양허명 이제 소리허영 내영 가도 섭섭하다. 산에 간. 먹술 놓안, 땅을 판 그레 하관허여도 섭섭하다. 달귀지는 소리를 헤 봐도 섭섭하다. 모든 걸 허여도 섭섭허는 거라. 겐 테역단풍³⁹⁰ 고사리 이불 덮어도 섭섭하다. 산담 헤봐도 섭섭하다. 겐 집이 완 초우제(初虞祭), 이우제(再虞祭), 삼우(三虞) 졸곡(卒哭)??지 허여도 섭섭하다. 상식(常食)허여도 섭섭허고, 이젠 초허루 보름허여도 섭섭허고, 뭇 허여주민 나 무음이 풀어지코. 대소기(大小忌) 다 허여도 섭섭허고, 팔월 십오일 돌아와 가민 산에 금벌 헤 주젠 벌초 헤 쥐도 섭섭허고. 다 넘으난. 석 돌 열 흘 백일 뒤 담제(禫祭) 허여도 섭섭허고. 그 법으로 지금도 식계(祭祀) 멩질로부터 사름 죽으민, 쪽 내려오는 것부터 식계(祭祀) 멩질 허는 것까지 이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운 법. 하도 못살안 원이 지난. 경 허연 현디. 저승에서는 이제 염라왕이 적배지(赤牌紙) 주멍

“강림아, 이거 앓앙이. 인간에 강. 백난 하르방, 백난 할망으로부터 차례차례 돌아오렌.”

허난. 강림스제가 똑바로 그걸 갖영 와불엇이민 지금도 우리가 차례차례 백난 하르방, 백난 할망으로 차례부터 갈 걸. 앓안 오노렌 허난 일곱 까메귀가 강골강골 막 또꼬망에 좇안 텅기멍

“강림스제님아, 강림스제님, 결영 강 올거민 우리 젓늘게³⁹¹ 붙여주민. 늘게³⁹²에 붙영 놀앙이나 강 오쿠덴.”

하도 허난.

“게문 너네 이거 붙여 주크메 놀앙 강 오라.”

허연 붙여 주난. 그거 젓늘게에 콤언 오논디 물 잡는 빛이 있어. 물 피나 혼 굴레씩 얻어먹영 가젠 간. 오독오독 담 우이간 앓으난, 물 잡던 도하닌³⁹³이엔 현 피쟁인 물 발통을 끊언 후 데끼난, 지네³⁹⁴ 맞험시카부덴³⁹⁵ 퍼딱 누는 게, 좇쟁이³⁹⁶에 콤엇던 건³⁹⁷ 털어져분거아니. 게난 이젠 물 잡던 피쟁인 그걸 봉간 보난. 아이고, 사름 잡으레 가는 적배지라. 이거 무서운 거엔 칼을 박박

389) 호상: 수의(壽衣)

390) 테역단풍: 단풍.

391) 젓늘게: 앞날개.

392) 늘게: 날개.

393) 도하닌: 하인.

394) 지네: 자기네.

395) 맞험시카부덴: 맞히는 줄 알고.

396) 좇쟁이: 겨드랑이.

397) 콤엇던 건: 품엇던 것은.

썰언 후 데껴부난, 뱃것돌³⁹⁸) 알로, 구렁인 데끼거니, 맞히거니 확 나완 움씩
들러먹으난. 까메권 인간에 가 보난 적베지가 엇연. 이제 물 잡는 밧딘 가보난
구렁이가 그걸 먹었어.

“나 적베지 드라. 나 적베지 드라.”

암만해도 구렁인 듣도 뵈도 아니헨 그걸 먹어불연. 구렁인 글 쓴걸 먹어부난
얼룩얼룩 허고. 이제 까메귀허고 구렁인 서로 보민 살부지³⁹⁹) 원수라. 막 서로
그냥 까메귀가 까까까깍 허연. 이제 그거 일러부난, 인간에 보난 열, 칠팔 세
난 청비발⁴⁰⁰) 애기씨가 물 질레⁴⁰¹) 물허벅 지연 왔이난

“어른 갈 때 아이가라. 아이 갈 때 어른가라.”

까메귀들은 까악까깍 울어가난

“헌저 글라, 저싱 가게.”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강 뵈서. 백난 하르방도 있고, 백난 할망도 잇수다.”

허난

“헌저 강 보내라.”

허난. 강.

“할아버지, 저싱 갑서.”

“난 말다.”

“할망, 저싱 갑서.”

“난 말다. 저 살단 가키여.”

아무도 저승은 안 가켄 허는 거라. 게난 애기썩 앓안 삼동냥 용얼레기⁴⁰²)로
머리 빗어 가가난. 일곱 까메권 상고박⁴⁰³)더레 오란 혼정을 뵈 저승을 가분거
아니파. 겐 저승 가부난. 비는 촉촉허게 오고, 염라왕은 초군문이나 돌아보주
긴⁴⁰⁴) 허연. 초군문을 돌단보난 열 칠팔 세 난 애기씨가 열 손가락 눈에 덕연
비새?찌 우는 거라.

“넌 누게가 되느넨?.”

허난

“난, 열 칠팔 세 난 애기씨로써 저승에, 인간서 명쫄란 왔수덴.”

허난. 이젠 강림이 불러단

398) 뱃것돌: 밖에 있는 돌.

399) 살부지: 살부지수(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말함.

400) 청비발: 청비바리. ‘비바리’는 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401) 물 질레: 물 길러.

402) 삼동냥 용얼레기: 삼동나무로 만든 용 모양의 빗.

403) 상고박더레:머리의 가운데 정수리 부분

404) 돌아보주긴: 돌아봐야지.

“강림아, 나 저추룩⁴⁰⁵⁾ 세파랑 현⁴⁰⁶⁾ 애기씨 들앙오렌⁴⁰⁷⁾ 헤냐? 백 난, 하르 방 할망 돌아오렌 헛주. 저추룩 세파랑 현 애기씨 돌아오렌 헤냐?”

허난

“일곱 까메귀를 쫓습네다.”

까메귀 돌아오렌. 까메귀 와가난 그자 대번칙이⁴⁰⁸⁾ 부에 난거라. 귀 심언 탁 치난, 귀도 오꼳 빠져불언. 까메귀 귀 었어. 빠 부난. 귀도 오꼳 빠져불고. 송 악낭 막데기로 그자 아렛저고리 세와날 하도 두드려부난, 갈아분 밧디 넘어가 져 허민 앙글즈침⁴⁰⁹⁾. 메 두드려부난게, 종아리 두드려부난, 앙글즈침 허고. 멧 독으로 까메귀는 꺼멍허고.

“너네 경헐 때 누게 봤느냐?”

허난

“똥수레기⁴¹⁰⁾도 봤우다.”

“똥수레긴 어디 갔느냐? 심어 들이렌.”

똥수리도 오난

“너, 큰큰헌 몸천에 그거 헐디 인도 못헛느냐. 너 이놈이 새끼, 넌 돌르게⁴¹¹⁾ 물도 못 빨아먹게.”

진진헌 주둥이⁴¹²⁾ 복허게⁴¹³⁾ 모지리멍

“널랑 물 먹구정허민 뽕도로록 뽕도로로로 비 청허영 터럭⁴¹⁴⁾에 물이나 빨아 먹영⁴¹⁵⁾ 살아라.”

경 허연 법지법을 마련 허난. 일곱 까메귀도 반쳐스가 뉘영, 아침이 우는 까메귀는 어린아이 들고 갈 까마귀, 낮이 우는 까마귀 젊은 사름 들앙 갈 까메귀, 저녁 때 우는 까메귀는 늙신네들⁴¹⁶⁾ 들고⁴¹⁷⁾ 갈 까메귀. 또, 낭에 보면 높은 상가지(上枝)에 강 앓앙 울면 그 일가 방답⁴¹⁸⁾에 상가지 즈순 들고 갈 까메귀. 중가지 앓으민 중가지 즈순, 하가지 앓으민 하가지 즈순 들고 갈 까마귀. 서로 마주 보멍 까왓까왓 막 허민. 싸움헐 까마귀, 테 짓영 막 덩기는 건 브름

405) 저추룩: 저렇게.

406) 세파랑 현: 나이 어린의 뜻임.

407) 들앙오렌: 데려오라고.

408) 대번칙이: 단박에.

409) 앙글즈침: 영겨주춤하다.

410) 똥수레기: 솔개.

411) 돌르게: 구멍 따위를 둥그렇게 파낸 곳.

412) 진진헌 주둥이: 긴 입.

413) 복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414) 터럭: 털.

415) 빨아먹영: 빨아먹고.

416) 늙신네들: 늙은이들.

417) 들고: 데리고.

418) 일가 방답: 일가 방상(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까마귀. 계난 까마귀 하도 두드려부난 데가리가⁴¹⁹⁾ 멍청허기 때문에, 먹을거 허영, 이젠 어디 초가집들 엇이난 허주만은, 초가지붕 우이 강. 팡 그디 묻어 텅, 구름끼영, 구름 넘어가불민⁴²⁰⁾ 구름만 좇앙⁴²¹⁾ 간 영똥헌디⁴²²⁾ 지붕 강 다 파불고, 경 허연 일곱 가마귀는 이제 또, 급허게 밤중에 우는 가마귀는 살인역 적 날 가마귀엔 허영, 가마귀도 반 처스(差使)가 되는 법입네다. 다 풀엇습네 다.

419) 데가리가: 머리가.

420) 넘어가불민: 넘어가버리면.

421) 좇앙: 찾아서.

422) 영똥헌 디: 영똥한 곳에.